

S

감독 이 원 석

2013.08.13

본 시나리오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무단복제 및 발행, 도용을 금합니다.

BIDANGIL PICTURES CO, LTD
tel 82.2.3443.2150/2160 fax 82.2.3443.2180



137-904, 2F 34-14, Jamsil-dong,
Seocho-gu, Seoul, Korea

추격자, 혈투, 늑대소년

제작 (주)영화사 비단길

음란서생 (2006)

추격자 (2008)

작전 (2009)

혈투 (2011)

늑대소년 (2012)

감독 이원석

미국 아트센터디자인대학 대학원 영화과 석사

보스턴대학 광고과 학사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 NDIF상 -

<남자사용설명서> (2013)

제15회 이탈리아 우디네 극동영화제 관객상 -

오랜만에 만나는 재기발랄한 데뷔작, '남자사용설명서'

경제투데이 장병호 기자|입력, 2013-02-08

포스터와 예고편만 보고 뽀한 로맨틱 코미디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허를 찌르는 재기 발랄함 속에 현실에 대한 공감 가는 시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남자사용설명서'(감독 이원석, 제작 영화사 소풍)는 오랜만에 만나는 재기발랄한 데뷔작이다...(중략)...연애비법보다 눈에더 띄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영화 전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독특한 정서다. "영성만 느낌의 B급 코미디를 좋아한다"는 이원석 감독은 영화 속에서 키치적인 정서를 과감하게 드러낸다. 외국인 배우들의 어색한 연기와 촌스러운 듯 독특한 CG로 완성된 '남자사용설명서' 비디오테이프는 물론, 영화 내내 허를 찌르는 이야기 전개가 감독의 남다른 취향을 짐작케 한다. 그러면서도 이원석 감독은 과장되지 않게 유머를 만들어내며 자연스러운 웃음을 자아낸다...(중략)...

#1. 프롤로그

캄캄한 공간. 위쪽부터 수평으로 된 빛이 들어와 점점 커지며 보이는 바깥 풍경.
붉은 융복차림의 수문장 옆으로 어딘가 어설픈 느낌의 병졸들이 도열해 서있다.
그때 느닷없이 그 앞을 지나가는 양복차림의 남자들.
공무원 남자가 호통 치며 뛰어오자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한다.

(공무원) : 어이, 거게 비켜요 비키라고! ... 거 아실만한 양반들이 많아...

화물칸이 열리는 비행기 뒤에 도열해 있는 수문장과 병졸 알바들.
공무원들이 카메라를 든 기자들을 잡아 비행기 앞에서 비켜서게 한다.

공항 로비. 비행기를 기다리며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조선왕실의게 귀환식을 보고 있다.
브라운관. 화물칸이 모두 열리자 수문장의 호령에 따라 두 패로 나뉘는 병졸들.
서로 마주보게 좌우향우 하더니 절도 있게 3보 뒤로 물러나 길을 만든다.
화물칸에서 태극기에 쌓인 몇 개의 나무상자들이 내려진다.

기자 : 1866년, 프랑스에 약탈당했던 왕실 의계를 비롯한 외규장각 문서 340책 중 297책
이... 오늘, 무려 145년 만에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전 앞. 제례악 속에 나무상자를 들고 입장하는 수문장과 병졸 알바들.
박물관장과 고위 공무원들 앞에서 관복차림의 높은 종친들이 일제히 큰절을 올린다.
위용 있게 품계석 사이를 지나 대전 앞으로 이동하는 나무상자.

도심. 신호를 기다리는 운전자, 빌딩 위의 전광판 뉴스를 본다. 전광판을 통해 보이는 박물관 로비.
<조선왕실의게 귀환 환영식>이란 현수막 아래서 고위 관계자들 사인에 맞춰 테이프 컷팅을 한다.
플래시 불빛 속에 의계를 중심으로 서서 사진 찍는 고위관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광판.

아나운서 : 외규장각 문서와 왕실 의계의 반환이 이루어짐으로서 국내 학자들은 그동안 자료가
없어 추측할 수 없었던 우리 조선왕실의 혼례와 제례, 연회 같은 여러 모습들은 물
론 당시 왕실의 의상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박물관 로비. 관장이 감격하여 격양된 얼굴로 연설을 하고 있다.

관장 : 이 문서들을 통해 우리 한복의 변천 과정을 다시 한 번 검증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로서 우리 조선의 의상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화
려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장 손짓에 하얀 천이 걸리며 모습을 드러내는 그림을 보고는 감탄하는 사람들.
궁궐 연회장면을 그린 의계 속에 화려한 붉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다.

마치 조선시대 한복이 아닌 중세 유럽에나 있었을 법한 아롱담고 긴 치마를 입은 그림 속 여인.
그녀의 뒤로 족히 5미터도 넘을 법한 치맛자락을 잡고 함께 걷는 궁녀들의 모습이 보인다.

관장 :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당시 왕실의 옷을 만드는 상의원에서 일하며 궁 안팎으로
여인들의 의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지금으로 말하면 왕실의 전담 의상 디자이너
내이라 할 수 있는 어침장으로 있던... 조.돌.석.이라는 인물의 발견입니다.

박수 속에 언문으로 쓰인 빛바랜 책에 등장하는 <조돌석>, <주.사.오.연.충.>, <중.연.모.모.>와 같은 글씨들.
플래시 불빛 속에 보이던 옛 한글로 적힌 글자들이 화면 어두워지며 현대의 한글로 바뀐다.

선왕 전하에서 승하하신지도 올해로 3년이 되어 새로이 용상에 오르시게 된
주상전하의 옥해를 감싸고자 다섯 방류의 용을 수놓은 곤룡포를 지어 올리노라
1726년 음력 2월 3일. 어침장 조돌석
(皇明 崇禎 紀元歲在 丙午年 新卯月 初三日, 御殿匠 趙玆石)

어둠 속에서 보이는 작은 불빛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는 화면.
굵은 황초불빛 속에 돌석(40대)이 앉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하고 있다.
오랜 세월 바느질을 해온 듯 상처와 굳은살로 가득한 그의 손.
마지막 한 땀을 뜨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단정하게 마무리를 한다.
그리곤 허공에 힘 있게 완성한 옷을 화려- 펼쳐는 돌석.
공손히 큰절 올리는 돌석의 앞으로 붉은 비단으로 만든 용포가 아름답게 펼쳐진다.

타이틀 상의원.

#2. EXT. 시장 - 낮

시끄러운 시장통 소리 속에 밝아지는 화면.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간다.
온통 축축해 보이는 지저분한 길에 흙탕물을 흘리고 지나가는 여인들의 치맛자락.
화면 붐업하자 투박한 모양에 칙칙한 색상의 옷차림을 한 사람들로 가득한 시장통이 보인다.

온갖 물건들을 파는 시장들을 비추며 가다 다른 골목으로 접어드는 화면.
앞과는 대비되게 형형색색의 고운 비단들이 긴 장대에 걸려있는 비단상점거리가 나타난다.
그중 <綾羅針房(능라침방)>이란 간판에 오색의 비단들이 진열된 커다란 가게...
베를로 짜낸 하얀 비단들을 색색의 염색물에 담갔다 꺼내서 장대에 거는 일꾼들.
옷감을 고르러온 양반집 규수들로 분주한 가운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보면.
도가(都家)로 댕기는 가게 옆에 있는 작은 문 앞에 물려든 구경꾼들.
뭔가 큰 싸움이라도 벌어진 듯 도가 안쪽에서 고성이가 오가고 있다.

#3. EXT. 도가 마당 - 낮

하나는 젊고, 하나는 늙은, 큰 갓에 도포 입은 두 양반에게 연신 허리 숙이는 대길.

젊은양반 : 여기가 돌아가신 선대왕마마와 전하의 옷을 만들던 어침장의 가게가 아니더냐?

대길 : 그렇긴 하온데...

젊은양반 : 그런데? 내 오랜만에 한양에 온 차에 숨씨 좋은 침선장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 이리 일부러 들렀거늘... 어찌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게냐?

대길 : 스승님께서 국상 중엔 비단 옷에 바느질을 할 수 없다고 하시는지라... 소인도...

흥분하여 삿대질하는 젊은 양반 뒤에서 괜히 헛기침하는 늙은 양반.

젊은양반 : 어허, 이놈! 그깟 도포 하나 만들어달라는데 감히 어느 안견이라고 이 어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선대왕 시절 금지하시어 태조대왕님의 농을 지키는 종로품 참봉 벼슬을 하셨던 분의 이종사촌의 처남댁의 조카사위 되시는 분이로...

늙은 양반. 긴 말 필요 없다고 으름...! 난 이런 사람이라는 뜻을 은뿔로 발산 중이다.
계속 고개만 숙이는 대길 뒤로 도가에서 나오는 삼베 두루마기에 종갓을 쓴 돌석.
마당으로 내려오더니 양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는다.

젊은양반 : 오호라... 네 놈이 바로 그 잘난 바느질쟁이로구나!
네 이놈! 이제와 무릎을 꿇는다하여 내 용서할 줄 알았더냐!
양반을 능멸한 죄로 내 당장 네놈을 관청으로 끌고 갈 터인즉!

그때 우르르 몰려나는 문 밖의 구경꾼들. 하얀 용복의 무관들 들어온다.
화색이 되며 팔뚝을 걷고 나서는 젊은 양반.

젊은양반 : 마침 잘 오셨소이다... 아, 글썸 이놈들이...

무관 : 비켜라.

젊은양반 : 예...?

칼자루 잡는 차가운 무관의 눈빛에 쫓아선 술그머니 벽에 붉는 양반들.
무관들 길을 열자 하얀 관복의 젊은 대전내관 들어와 두루마리 펼친다.
그러자 엎드려 공손히 절하는 돌석.

대전 : 어침장 조돌석은 속히 의관을 정비하여 입궐하라는 주상전하의 하명이시외
돌석 :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내관의 말이 끝나자 다시 한 번 큰절 올리는 돌석.
그 기세에 눌린 양반들, 구석에서 눈만 꺾꺾거려댄다.

#4. EXT. 대궐 - 낮

묵직한 돌쩌귀 소리를 내며 좌우로 열리는 거대한 권문.
열린 권문으로 보이는 장엄한 궁의 정경을 바라보는 돌석의 얼굴.
대신들을 따라 넓은 권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돌석.
멀리서 열리는 또 하나의 큰 문. 그 안쪽으로 또 다른 문들이 계속 열린다.

#5. EXT/INT. 부용지, 부용정 - 낮

연꽃잎 가득 떠있는 부용지. 지루한 듯 허리 숙이고 있는 하얀 관복의 대신들.
백룡포의 왕(30대)이 낚싯대를 당기자 잉어 한 마리가 펄떡거리며 잡혀 올라온다.

대전 : 전하, 월척이옵니다.
대신들 : 경하 드리옵니다. 전하...

대전내관의 말에 대신들이 일제히 입을 열자 시큰둥하게 낚싯대를 치우는 왕.

왕 : 경하는 무슨...

정자로 들어와 목을 축이는 왕. 영의정을 따라 대신들이 허리를 숙인다.

왕 : 그래, 오늘은 무슨 일들이오?
영의정 : 선왕께서 승하하신지 3년이 되었으니 이제 상복을 벗으셔도 되실 줄 아옵니다...
왕 : (건성으로) 형님께서 그리 가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구려...
내 비록 그대들에 물리어 왕위에 오르기는 했으나 아직 마음이 무겁소이다...
경들은 너무 강요하지 마시오...
영의정 : 신들 모르는 것은 아니오나 예법과 국조가 그러하오니 부디 통촉하여주시옵소서...

씨익- 하고 입 꼬리를 올리는 왕. 돌아서면.

#6. INT. 대전 - 낮

하얀 관복을 입고 두 손으로 붉은 곤룡포를 올리고 있는 돌석.
양팔을 벌리고 선 왕의 몸에서 내관들이 백룡포를 벗겨준다.
왕의 뒤에서 곤룡포를 걸쳐주는 돌석. 곤룡포의 소매를 매만져주는 돌석의 손.
뒤통수를 묶어주는 손 옆으로 보이는 다섯 발톱의 용이 수놓인 흉배...
머리에 익선관을... 허리에는 옥대를 채우더니... 마지막으로 흑화를 발에 신겨준다.
허리 숙이는 돌석 앞에서 뿌듯해하는 왕. 대신들이 조용히 눈짓을 나눈다.

영의정 :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이제 전하께서 정식으로 곤룡포도 입게 되었으니 모든 길 새로이 출발하심이 마땅한 줄 사려 되옵니다. 현대 아직 후사가 없으시어 못 백성들의 걱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오니 이리도 마마와 합방을 안하실바에 차라리 폐위 하옵시고 차라리 새로이 증전을 맞이하시는 것이...

(지밀) : 종전마마 납시옵니다...

지밀의 목소리에 이어 들어오는 왕비(20후)의 모습에 입을 다무는 영의정패.
왕에게 인사하는 왕비. 마치 그녀를 못 본 듯 왕은 돌석에게 시선을 던진다.

왕 : 아침장은 그새 회춘이라도 한 모양이오. 국상 중에 몰래 장가라도 드셨나.

무안해하는 왕비. 돌석, 당황해서 얼굴만 붉어진다.

왕 : 반갑다는 말일세.

돌석 : (왕비의 눈치를 보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왕비, 모르는 척 하면. 자신의 웃을 보며 기뻐하다 원가를 보는 왕.

왕 : 근데 무엇이오, 저건?

돌아보는 일동. 면류관에 면복 일체가 걸려있는 의대물이 보인다.

제조 : 곧 있을 선왕전하의 제례에 입으실 전하의 면복이옵니다... 윤택하여주시옵소서...

왕 : 어차피 똑같은 거... 그대들이 알아서 하시오.

고개 숙이는 돌석과 제조영감. 내관들이 왕의 버선을 갈아 신겨주면.

대전 : 전하, 금일 버선은 어찌하올지...

왕 : (들어보더니) 음... 그래... 오랜만에 우리 영상에게 내리는 것이 어떨겠느냐?

영의정 :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왕 : 국상을 치르느라 모두가 수고하였는데 과인 혼자만 새 옷을 입는 것이 그러해...
내 대신들에게도 관복을 한 벌씩 내릴까하니... 아침장, 그대가 수고 좀 해주게...

돌석, 허리 숙이면. 서운한 얼굴로 있는 왕비를 본 왕.

왕 : 아, 참... 우리 종전에게도 잊지 말고 한 벌 지어 올리도록 하게나...

(묘한 눈빛으로) 아주 고운 빛깔로 말일세...

대신들 :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대신들과 함께 허리 숙이는 돌석의 눈에 비친 왕비.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인다.

#7. INT. 상의원 - 낮

화면 가득 바닥에 굴러가 펼쳐지는 단아한 색상의 여러 비단들.

녹색 관복의 돌석이 장인들을 이끌고 창고 바닥에 펼쳐진 비단들을 고른다.

그의 뒤편으로 보이는 방 안 가득 걸린 왕과 왕비를 위해 만든 화려한 옷들...
문이 열리자 긴 책상에 앉아 바느질하는 수십 명의 침선비들과 장인들이 나타난다.
속옷을 만드는 자, 버선을 만드는 자, 수를 놓고 금박을 붙이는 자 등을 보여주는 화면.
돌석, 뒗짐을 진 채 바느질하는 침선비들 뒤를 지나치면... 이곳이 바로 상의원이다.

판수 : 잠깐-!! 잠깐만 기다리시오-!! 기다려-!!

붉은 관복의 제조영감과 원가를 상의하던 돌석의 귀에 들리는 목소리.
멀리 문 밖에서 달려오던 판수(30대)가 자신의 옷자락을 밝고는 자빠진다.

제조 : 아허... 저저... 저 양반이란 놈이 저...

흙투성이가 된 몸으로 아픈 무릎을 잡고 들어오는 판수.

판수 : 아으, 염병... 아우 아파... 당체 이놈의 옷 때문에 뭘 수가 있나...
영감, 전하께서 대신들에게 하사할 옷감들을 고르라하셨다면서요?
제조 : 쫓쫓쫓... 이미 어침장, 이 사람이 다 끝냈다네.
판수 : 예?!

꽂아보는 판수를 향해 슬쩍 인사하더니 지나가는 돌석.

#8. INT. 상의원 - 밤

금직한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 여는 손. 화려하게 장식된 문갑이 열리면.
문갑 안에 차곡차곡 정리된 수백 개의 옷본들.
침선비들이 비단을 펼쳐놓자 옷본들을 올려놓은 돌석, 판수를 쳐다본다.

돌석 : 뭐 하시오, 아니 읽으시고
판수 : 아이, 뭐 이거 꼭 해야 되나?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외우면서...
돌석 : 상의원의 법도되다... 읽으시오.
판수 : (짜증난) 일품은 공복홍포에 상복사리능단하고 문관공작 무관호표하니... 일품 관원
의 관복은 붉은 색의 비단으로 만들며 문관의 흉배는 공작으로 하며...

<經國大典(경국대전)>이라고 적힌 표지. 한자로 가득한 책을 읽는 판수.
심호흡을 한 돌석, 정성스러운 손길로 옷본을 따라 비단에 마름질(재단)을 한다.

#9. INT. 취향루, 방 - 밤

판수와 제조 한창 술판 중이다.

판수 : 아, 내가 원 드러워서... 술직한 말루다가 선왕 때야 그렇다고 쳐요 웅? 근데...

다른 대신들은 싹 다 물같이 하셔놓고 왜 그치는 남겨두냐... 이 말입니다
 제조 : 거 사람 참... 까짓 바느질 아무나 하면 어떻다고..
 판수 : 아, 영감... 일게 바느질쟁이 주제에 정7품까지 올라온 데다..
 웅? 이제 1년만 더 채우면 종6품으로 출륙(出六)까지 한다잖아요
 제조 : 그래서? 정식으로 과거 뵈 들어온 양반인 자네보다 높아질까봐?
 판수 : 막말로다가 출륙이 뭘니까? 웅? 진짜 양반이 된다는 건데..
 한자도 몰라 책 하나 못 읽는 농인데... 말이 되냐고요..
 제조 : 전하께서 하명하신 일일세... 다시 꺼내지 말게나... 에헴!

제조의 말에 괜히 긴 저고리로 몸을 가린 기녀들을 보는 판수.

판수 : 애헤이, 거 기생이란 것들 옷차림하고는... (자기 도포를 만져보게 하며) 봐, 봐...
 니들...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명품... 명나라 출신 장인이 한 뼘 한 뼘 공들
 여 만들어 명품이라 부르는 것이니라... 하긴, 너희 같은 것들이 알 리가 없지..
 기녀1 : 아이, 더워라...

그러자 조용히 눈빛을 나누더니 걸저고리를 벗는 기녀들. 판수가 놀라선 숨을 뿜는다.
 길게 갈라진 치마 사이로 보일락 말락 하는 허벅지에 한 뼘 밖에 되지 않는 저고리하며
 다 가렸음에도 은근히 야한 옷차림에 판수가 침을 꿀꺽 삼킨다.

판수 : 어허...! 도대체 이... 어찌 이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차림이란 말이나..
 무릇 여인들의 저고리라 하면 단정히 배를 가리도록 되어있었거늘..
 기녀1 : (끼어들며) 어머... 갖에 웬 먼지가...

팔을 들어 판수의 갓을 털어주는 기녀1. 저고리가 올라가며 하얀 속살이 보인다.
 영- 하니 쳐다보다 기녀1과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는 판수.
 까르르- 웃는 기녀들의 웃김에서 작은 고사리 문양을 발견한다.

판수 : 너... 너희들... 당체 이런 옷은 어디서 구한 게냐?
 기녀1 : 구하긴요. 호호호... 전부 공진 도련님이 만들어주신 거랍니다.
 판수 : 공진? 그게 누구데?

#10. EXT. 대가 집 앞 - 밤

깊은 밤, 어느 대갓집 담장 밖, 고목나무에 매달린 그네..
 앞뒤로 몸을 흔들어가며 그네를 흔들어대는 사내의 뒷모습이 보인다.
 "헛둘! 영차!" 훌쩍 그네에서 몸을 날려 높은 담장 너머로 사라지는 사내. 그러자

(남자) : 저놈 잡아라-!!!

곧바로 와- 하는 함성소리와 함께 대문이 벌럭 열리며 뛰쳐나오는 사내.

미친 듯 도망치는 사내 뒤로 뭉둥이를 든 남자들이 몰려나온다.

#11. EXT. 조용한 골목 - 밤

남자들을 피해 죽자고 달리는 사내. 조용한 골목. 어디선가 개도 짖고.
저만치 '저 놈 잡아라!' 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떠올린 것 같다.
그때 갑자기 죽어라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오더니 어딘가를 본다.
어두운 골목. 긴 담장. 그 담장 가에 홀로 서 있는 벚꽃나무 하나.
밤바람에 배경으로 새하얀 벚꽃 잎이 눈처럼 떨어지고 있다.
까만 밤하늘과 하얀 눈꽃 같은 벚꽃 잎의 아름다움에 멍하게 서 있는 사내.
그 순간 쫓아온 남자들이 멍하니 서있던 사내를 덮쳐 쓰러트린다!

#12. INT. 취향루 내실 - 밤

어둡고 긴 복도 안쪽으로 일렁이는 불빛에 보이는 내실.
시커먼 물처럼 일렁이는 넓게 펼쳐진 치마폭에 누워있는 사내가 직부감으로 보인다.
윙환적인 분위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를 따라 내려가는 화면.
월향(20대)의 빨간 입술에서 나온 공방대를 뿜더니 도너츠 같은 연기를 내뿜는 사내.
온통 멍이 든 얼굴로 월향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그, 바로 공진(20대)이다.
장난스러운 얼굴로 공진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월향.

공진 : 아앗! 아아아아... 에이 진짜...!
월향 : 한동안 안 보이시더니... 부엌각 아이들 치마폭에 게셨다지요?
그러게 그 애들 치마폭에서나 노시지... 한 대강 집 담은 왜 녀셨습니까...
공진 : 아, 내가 녀고 싶어 녀왔냐고.. 그 집 막내 딸내미가 꼬드겨서 녀왔지...
월향 : 뭐 오늘 일이야 다행히 그 노인네가 색을 좋아하여 막아드릴 수 있었으나...
소문을 듣자하니 얼마 전 단오절 머리감으러 나온 복춘 박 대강 막 외동딸님의 머
리까지 올려주셨다 던데... 그것도 숲 속에서 말입니다... ㅎㅎㅎㅎㅎ...
공진 : 아, 이... 이게 진짜... 저 서방, 명석말이 당하는 꼴을 보려고 하나...
월향 : 그게 무서우신 분이 그리도 양갓집 처녀들을 건드리고 다닌단니까?
이러다 도성 내에 남아나는 처녀가 없어 왕비마마까지 탐하시겠습니까...
공진 : 왕비? 그깟 할망구를 뭐 하러... 젊은 후궁이라면 몰라도...
월향 : 할망구라니요? 이제 겨우 스물을 넘기신 분한테... 게다가...
아직 사내 맛을 모르는 숫처녀라 합니다...
공진 : 푸하하하! 숫처녀? 뭐야 그런... 왕이 고자란 말이나?
월향 : 설마요...
공진 : 그게 아님... 그 왕비란 여자의 얼굴이 아주 가관인가 보구나... 내 말이 맞지?
월향 : 들리는 소문엔 양귀비 향치는 자색을 가지셨다 하옵니다...
공진 : 양귀비는 개꿀... 아! 살살 좀 해~
월향 : 그러게 뽕박질도 못 하시면서 일은 왜 벌이시고...

그러자 별떡 일어나는 공진. 뽕가를 찾듯 두리번거리다 월향의 검은색 치마를 본다.
갑자기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더니 월향에게 달려들어 치마를 벗겨대는 공진.

월향 : 어찌 이러십니까... (그다지 싫지 않은 듯) 그만 밀린 술값부터 행하시옵소서...

그런데 진도를 나가는 대신 벗겨낸 치마를 보다 안감을 뜯어내버리는 공진.
보료에서 빨강고 파란 비단 조각들을 뜯어내더니 치마 위에 툭툭 던져놓는다.
그러곤 잠시 그것들을 보다 비단주머니를 펼쳐 바느질 도구를 꺼내는 공진.
가위로 비단조각들을 거침없이 잘라내더니 치맛자락에 대고 바느질 시작한다.
집중하여 바느질하는 공진을 보다 조용히 붉은 황초에 불을 켜주는 월향.
희열에 찬 공진의 두 눈. 그의 바늘 끝을 따라 빠르게 이루어지는 반박음질.
웃기에 작은 고사리 문양을 수놓는 걸로 마지막 바느질을 끝낸 그가 치맛자락을 허공 화락- 펼친다.
자그마한 붉은 저고리에 봄밤 낙화처럼 고운 꽃잎이 수놓아진 검은 치마저고리를 입은 월향.
안감이 없어 속이 현히 비치는 치마에 수놓아진 작은 벚꽃 잎들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공진 : 술값이라 치거라...

금세 흥미가 사라진 듯 드러눕는 공진. 월향, 새 옷이 마음에 드는 듯 이리저리 살펴본다.

#13. EXT/INT. 왕비전, 별채 - 낮

왕비 : 수고하셨습니다...

궁녀들이 펼쳐주는 치마저고리와 원상을 보는 왕비.
대나무밭 밖에서 찻상을 받고 있던 돌석이 조용히 허리 숙인다.
왕비가 읽고 있던 책을 덮자 보이는 <孫子兵法>이란 표지.

돌석 : (인자하게) 병법서가 재미있으십니까...
왕비 : 처음엔 지루했는데. 워다보니 이 안에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전쟁이나 다름없어 그런가 봅니다...
돌석 : (웃으며 고개 끄덕인다)
왕비 : 그래도 아저씨께서 전해주시는 궤 밖의 이야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돌석 : 망극하옵니다..
왕비 : 참... 부탁드린 것은 가지고 오셨는지요?

그러자 한쪽에 놓아두었던 곱게 접힌 왕의 면복을 밀어주는 돌석.
왕비의 손이 면복 아래로 길게 늘어진 해진 구장(九章) 끝을 만져본다.

돌석 : 소인이 하여도 돼온데...
왕비 : 아닙니다. 전하께서 새 옷도 주셨는데... 나 역시 뭐라도 해드려야지요...
내, 침방 아이들에게 맡길 테니 아저씨 대신들께 내릴 관복이나 만들어주세요...

허리 숙이는 돌석을 보며 미소 짓는 왕비. 궁녀들이 면복을 챙겨간다.

#14. INT. 공진의 가게 - 낮

긴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부러운 눈으로 어딘가를 보는 여인.
화려한 옷차림의 기녀들이 공진과 장난치며 비단들을 보고 있다.
자신들을 보던 사대부 여인과 눈이 마주치자 도도한 미소를 짓는 기녀들.
화들짝 놀란 여인이 뭉중을 이끌고 가자 웬 도포차림의 남자가 나타난다. 판수다.

공진 : 왜요? 애침 아이, 옷 한 벌 해주시게?

판수 보더니 지들끼리 까르르- 웃는 기녀들.

판수 : 내 그... 도포 하나 맞춰보려고 하는데... 하는 길에 새로 받은 관복도 좀 고치고.

공진 : (일어나 판수 위아래로 보더니) 설마... 내시슈?

기녀들 눈 동그래져선 아랫도리 보자 움츠리는 판수.

판수 :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공진 : 우리 침방은... (기녀 엉덩이 치며) 요런 것들이나 오는 곳이거늘...

판수 : 그냥 좀 해주면 안 되겠나? 뭐랄까... 조금 다르게 말일세.

공진 : 다르게... 다르게라... (장난스럽게 판수를 살펴보면)

#15. EXT. 인정문 행각 마당 - 낮

궁궐 곳곳에 보이는 관원들의 모습들.
뚱뚱이는 꼭 끼고, 말라깽이는 헐렁하고, 키 큰 자는 짧고, 작은 자는 옷자락이 끌리고...
관복 사이즈가 한 종류 밖에 없는 듯 다들 불품없이 그지없다.
그때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나타나는 남자. 옷깃에 고사리 문양을 새긴 관복을 입은 판수다.
그를 돌아보다 서로 부딪히고 뒤엎켜 자빠지는 다른 관원들.

INS> 침방. 판수 관복을 막 불게 당겨 가봉하는 공진.

공진 : 웃기지 않소? 사람의 키와 체격이 천차만별이거늘 관복의 크기는 하나뿐이란 게...

판수 : 어허, 이 사람... 그리 당기면 숨을 쉴 수가 없지 않은가...

공진 : 다 이렇게 하는 것이오... 누가 요즘 그런 푸대자루 같은 걸 입는다고...

크지도 작지도 않게 몸에 꼭 밀착된 판수의 관복.

INS> 자그마한 판수에게 뭔가 깨내주는 공진. 굵이 높은 깔창이다.

공진 : 내 한 번 만들어본 건데... 키 높이 팔판이라고... 키가 한... 두 치쯤 커질 게요
판수 : 두 치나... 그런 신묘한 물건이...!

팔창 깔린 신발 신고 걸어가는 판수의 발. 판수 머리 다른 관원들과 비슷해져 있다.

INS> 늘씬한 옷태에 키도 좀 커진 판수. 하지만 공진 영 뭔가 맘에 들지 않는다.

공진 : 왜 이리 태가 만나나 했더니... 어쭙이셨구만.
판수 : 어... 쯤...?
공진 : 어깨가 좁다는 말이우... 쫓쫓... (기녀3 향해 손 내밀면)

공진 턱짓에 자기 가슴 보는 기녀3. 흘기더니 가슴에서 뭔가 꺼내 내민다.
폭신평 보이는 손바닥만 한 방석 같은 '그것!'

공진 : 아, 이거? 이거 봉(峰)이란 건데... (판수 가우뚱하면)
평평한 가슴을 복한산 봉우리마냥 저리 볼록 솟게 해주니... 봉이 아님 뭐겠소.
판수 : (기녀들 가슴 보더니) 아아... 그 보옹-
공진 : (판수 어깨에 꺼주며) 자, 이제 다 됐수다.

화면 분할되며 <以前>, <以後>라는 자막과 함께 보이는 판수의 비포어&에프터 모습.
봉이 들어가 넓어진 어깨 흔들며 걷는 판수. 자신감 넘치는 그에게 제조가 다가온다.

제조 : (판수 살펴보며) 자네 어깨 뭔가 바뀐 거 같아...
하루사이 어깨도 넓어지고... 키도 좀 큰 것 같고...
판수 : (뿌듯한 얼굴로) 허허... 그럴소이까?
제조 : 혼자 뭐 좋은 거라도 먹었나?
판수 : 어허, 이거... 혼자만 알고 있으려 했는데... 허허... (살피더니 조용히)
제조 : (눈 커지면) ...!

INS> 평화로이 손님으로 온 기생들을 희롱하며 앉아있다 놀라는 공진.
활레벌떡 달려온 제조의 뒤로 다른 관원들이 밀려든다.

만족스러운 얼굴로 몸에 맞는 관복을 입고 등청하는 제조영감.
다른 관원들의 옷깃에도 모두 공진이 새겨놓은 고사리 문양이 박혀있다.
제조에게 인사하고 가려다 뭔가 이상함에 멈춰 돌아보는 둘씩.
어쩐지 모든 관원들의 차림이 평소와 달라 보이는데...

#16. INT. 도가, 둘석의 방 - 낮

대길 : 등청하실 시간이옵니다...

짧은 두루마기에 작은 종갓을 쓰고는 나갈 준비를 하던 돌석.
한쪽에 걸려있는 양반이나 입을 벌한 옥색 비단 도포와 큰 갓을 바라본다.

대길 : 이제 곧 입게 되시겠군요. 미리 경하드립니다...
돌석 : (땀칭 부리며) 에헴... 뭐 그게 그리 중요하다고...

구겨진 도포자락을 정성스레 펴더니 흐뭇하게 바라보다 나가는 돌석.

#17. EXT. 시장 - 낮

도가를 나서던 돌석이 한산한 가게를 보고는 대길을 쳐다본다.

돌석 : 어찌 이리도 손님이 없는 게냐? 국상도 끝나 손님들이 몰려들 시기인데.
대길 : 실은 그것이...

CUT. TO :

대길 따라 좁은 뒷골목을 지나 멈추는 돌석. 어딘가 보면.
쌀가게 사이에 있는 공진의 작은 침방. 사대부 손님들이 줄지어 서있다.

대길 : 본래 기생들 옷이나 만들던 곳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며칠 전부터...
돌석 : 쪽 상복만 입었으니 잠시 화려한 것을 찾고 싶은 게지...
걱정 말거라... 곧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니라...

별 일 아니라는 듯 대길을 앞세워 떠나려던 돌석, 고개 돌려 멀리 공진을 바라본다.

#18. INT. 내전 침방 - 밤

은은한 불빛을 내는 촛불. 침방 한 편에 왕의 연복이 걸려있다.
해진 구장을 보며 긴 비단조각에 새로이 구장을 수놓는 침방궁녀와 무수리들.
어린무수리 유월이 감기는 눈을 비벼가며 바느질하다 촛대를 쓰러트리고 만다.
실 땀에 붙어 타오르는 불길. 궁녀들 당황해 끄려하다 그만 연복으로 옮겨 붙는데.

CUT. TO :

몸통만 남긴 채 흥물스럽게 타버린 왕의 연복.
제조영감과 판수, 돌석, 정 별좌가 침통한 얼굴로 내려다본다.
울먹이는 유월이와 궁녀들 앞에서 작은 한숨을 내쉬는 왕비.

유월이 : (꿀으며) 죽여주시옵소서. 마마...
침방들 : (일제히 꿀으며) 죽여주시옵소서...!
왕비 : (작은 탄식하더니) 너희에게 무슨 죄가 있더냐...

다 전하에게 환심을 사고자 무리하게 일을 시킨 나의 죄지...

유월이 : (울며) 마마 흐흐흑...

왕비 : (돌석 보며) 아저씨... 진정 내일 제례 때까지 다시 만들 순 없단 말입니까...?

돌석 : 송구하옵지만... 주상전하의 의대는 국법에 정해져있는 예와 법에 따라 길일을 정하고 제를 올린 후에야 만들 수 있는지라... 이리 만들 수는 없는 줄 아뢰옵시다...

왕비 : 저의 부탁인데... 그래도 아니 되겠습니까...?

깊이 허리 숙이는 돌석. 조용히 지켜보던 판수가 입을 연다.

판수 : 저... 신에게 한 가지 방도가 있사온데...

번쩍 눈을 뜨는 왕비. 돌석도 판수를 본다. 눈치 주는 제조.

판수 : (모른 척하며) 실은 궐밖에 아는 침선장이 하나 있는데... 혹 그자라면...

왕비 : (화색이 되면) 그래요?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19. INT. 취향루 내실 - 밤

재미있다는 듯 구경하는 월향. 공진, 자신을 일으키려는 판수 뿌리친다.

공진 : 아이, 나 진짜... 내가 거길 왜 가요?

판수 : 어명이라니까. 너 인마 어명이 댜지 몰라?

공진 : 애에에... 난 무식해서 그런 거 모르고... 술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그냥 가쇼. 응?

술잔 채우는 공진. 판수, 문 앞에 서있던 무관 둘 돌아본다.

그러자 돌아와 공진 향해 번개같이 환도를 뽑는 무관들.

시퍼런 칼날이 공진 목덜미를 겨누다. 놀라선 술잔 툭 떨어트리는 공진.

판수 : 니가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어명이란 게 이런 거거든?
줄라게 살 떨리는 거야. 알아?

씨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무관들을 보던 공진.

공진 : 아, 몰라.. 그럼 패던지...

확 배 까고 드러눕는 공진. 당황한 무관들, 판수 돌아보면.

판수 : 아이, 이런 꼴통 새끼...

월향 : 재미삼아 가보시지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대궐 구경이나 해보겠습니까?

판수 : 그래 부탁 좀 하자... 지금 중전마마께서 정말 곤란한 지경에 빠지셨다니...

월향, 왕비란 말에 공진을 보며 지긋이 웃으며 록 하고 친다.
누워있다 멍청하는 공진의 눈빛.

공진 : (몸 일으키며) 지금... 왕비라고 했수?

#20. INT. 내전 침방 - 밤

공진 왕크에 부끄러워하는 공녀들. 지밀상궁의 헛기침에 자세들 바로 한다.
공녀들 향해 웃어주는 공진. 그런 그를 저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돌석과 우리들.
아직 사태의 중차대함을 모르는 공진 두리번거리다가 돌석과 눈이 딱 마주친다.
돌석은 공진을 무게 실린 눈으로 보는데, 공진은 시큰둥한 표정이다.

이때, 얇은 사(絲)로 된 오색의 주렴 뒤에서 공녀들을 이끌고 왕비가 나타난다.
술쥌 시선 들어 훑쳐보는 공진. 황초 불빛에 먼 듯 보이는 왕비의 모습.
공진, 처음 보는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자기도 모르게 숙이던 고개 스록... 다시 들더니 멍하니 왕비를 본다.
되바라진 공진의 모습에 미간을 찌푸리는 돌석.
판수가 옆 발질로 툭툭 차더니 공진에게 고개 숙이라고 눈짓한다.
그제야 정신 차리고는 고개를 숙이는 공진.

왕비 : (판수 향해) 이이가 그 침선장입니까?
판수 : 그렇사옵니다... 이자가 바로 말씀드린 이공진이옵니다...

공진,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은밀하게 왕비의 자리를 훑쳐본다.
여리게 흔들리는 주렴... 그 뒤로 고고하게 앉아 있는 왕비.

왕비 :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만 하면 내 평생 그대의 이름을 기억하리다...

그녀의 청명한 목소리... 공진, 두 눈동자가 흔들린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진. 판수가 툭 차며 말하라고 톡짓하면,
짜증 섞인 눈으로 돌아보는 공진. 까맣게 불에 탄 면복을 보곤 어찌할까 한다.
그러다 걱정스런 왕비의 표정을 본 공진, 망설이던 입을 열면.

공진 : 할 수 있습니다. 소인이 필히 해내겠습니다.

공진의 당돌함에 노려보는 돌석.
하지만 주렴 뒤에 있는 왕비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오른다.
한 번도 자신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지만 마치 자신을 보고 웃는 듯 느끼는 공진.
쿵쾅거리는 자신을 심장소리를 듣게 되는 공진.

왕비 : (화색이 되어) 그래요? 내 그럼 그대들만 믿겠습니다...
지밀은 침방과 수방 아이들로 하여금 저이를 돕게 하라...
돌석 : 마마, 허나...!

아쉬운 눈으로 주렴 너머로 떠나는 왕비의 치맛자락 보는 공진.
떠나는 왕비를 보던 돌석, 고개 들어 공진을 노려본다.

돌석 : 네놈이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고 있느냐? 법도와 절차를 무시한다 하여도 하
룻밤이라니... 그것도 주상전하의 옥체조차 배알한 적이 없는 놈이 어찌...
공진 : (뻔히 보더니) 뉘소?
대길 : 어허, 이자가 감히 어디서... (돌석이 말리면)
공진 : 난 허풍 떠 적 없소이다.
돌석 : 네 이놈... 면복이 무엇인지 알거나 하는 것이냐?

대꾸하려다 창호문에 비치는 왕비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공진. 그걸 모르는 돌석.

돌석 : 허허, 그러면 그렇지... 영감, 이제라도 마마께 아니 된다 고하시는 편이...
공진 : 면복은...!

웅성거리다 공진 보는 판수와 돌석, 제조영감들.

INS> 침방 복도에 멈춰 서서 이야기 듣고 있는 왕비.

(공진) : 면복이란...! 국왕의 조근지복(朝覲之服)이라 하여 종묘와 사직에 제사하고 경조(正
朝)와 동지, 조희 등에 착용하는 대례복이올시다.

불에 탄 면복의 면면을 보여주는 화면 위로 돌리는 공진의 목소리.

공진 :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면복은 크개는 연류관과 곤룡포로 구성되고, 곤룡포는 다시
의, 상, 중단, 폐술, 혁대, 대대, 패옥, 수, 말, 석으로 이루어지며 거기에 규를 들어
야 한다 되어 있소. 이때 의(衣)는 청색과 흑색에 약간의 적색이 섞인 무늬 없는 앞
은 비단으로 지어야 하며 어깨에는 다섯 발톱의 용을, 등에는 산을, 소매에는 불,
화중, 범을 그려 넣고... 상(裳)은 앞은 비단을 일곱 폭의 길이로 하고 허리는 주름
을 잡아 벽적하여 마름, 쌀, 도끼 그리고 물기(리) 자를 서로 마주보게 수놓는데...
의에 다섯 그림에 상에 수놓은 네 그림을 합하면 모두 아홉 가지라 구장포(九章袍)
라고도 칭 한다 적혀 있소이다. 이것이 내가 아는 면복이외

INS> 복도에서 듣고 있다 안도하더니 궁녀들 이끌고 가는 왕비.

조용해진 침방 안. 사라지는 왕비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공진.
의외라는 표정의 판수와 제조 옆에서 돌석만이 놀란 눈으로 공진을 노려본다.

지밀 : 다른 분들은 그만 나가주시지요..

#21. EXT. 침방 앞 - 밤

제조영감과 판수를 따라 침방 앞을 나오는 돌석.

돌석 : 영감, 지금이라도 말리는 것이...

판수 : 에헤이... 거 책임을 져도 종전마마께서 지신다지 않소.

판수의 말에 고덕이며 침방 앞을 떠나는 제조영감.

판수를 노려보던 돌석, 돌아보자 침방 문 닫는 공진이 보인다.

#22. INT. 내전 침방 - 밤

지밀 : 무엇부터 해야 할지 지시해주시지요.

공손히 말하는 지밀. 공진 줄지어 서있는 궁녀들 앞을 지난다.

공진 : 많아놔야 번잡스럽기만 하고... 손 맞출 몇 명만 있으면 되오.

궁녀들 앞에 손 내미는 공진. 눈치 보던 궁녀들 강아지처럼 손 내민다.

그러자 뒤집으라고 손짓하는 공진. 궁녀들 손바닥 보여주면.

찬찬히 궁녀들 손가락 끝을 살피더니 몇 명만 남기고 물러서게 하는 공진.

지밀상궁 턱짓하자 나가는 궁녀들. 공진, 긴장한 남은 궁녀들에게 윈크한다.

#23. EXT. 종묘 제례 (웅타주) - 낮

웅장한 제례악 속에 축함(祝函)을 따라 종양의 신로(神路)를 걸어가는 신위.

그 우측 어도(御道)로 연복의 왕이 따라간다.

정전에 모셔지는 신위. 집례의 호령에 절하는 왕. 문무백관들도 함께 절을 올리면.

#24. INT. 회정당 - 밤

제조 옆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판수와 공진.

왕비 앞에서 왕이 내관들의 도움을 받아 면복을 흑룡포로 갈아입고 있다.

불편한 눈빛으로 면복을 뚱뚱히 쳐다보는 돌석.

왕 : 어찌 전에 입던 그것이 아닌 것 같군...

움짚히는 제조영감과 판수. 왕비도 긴장하는데... 그럼 그렇지 하는 돌석. 하지만.

왕 : 뭐랄까... 좀 더 편안해졌달까.

그제야 안도하는 왕비와 판수, 제조... 돌석만이 인상이 굳는다.

왕비 : 소첩, 의대가 남아 보여 급히 고치게 하였습니다...
미리 윤택 받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왕 : 난 또... 드디어 탈상이라 한결 편한가 했더니... 중전의 수고였구려...
(사람들 향해) 괜히 찢려 하마터면 항 깨트릴 뻔 했다는 거 아닌가. 하하하하

왕의 농담에 이걸 따라 웃어야하나 눈치만 보는 대신들.
과하게 웃어대던 왕, 뒤늦게 공진을 발견한다.

왕 : 저 자는 누구더냐? 못 보던 자로구나?
돌석 : 그것이... (우물쭈물하면)
왕비 : 의대를 손보는데 큰 재주가 있다하여 소첩이 청해온 침선장이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왕비에게 시선 주지 않는 왕.
공진 슬쩍 보니 왕비, 왕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왕 : 솜씨가 좋구나. (돌석에게) 이 자에게 내 사냥복도 만져보라 하라.
돌석 : (움짤했지만 이내) 예. 전하...
왕비 : (안도하면) ...

돌석의 불편한 시선 속에 몰래 왕비를 훑쳐보고 있는 공진.

대전 : (버선 들고서) 전하, 금일 버선은 어찌하올지...
왕 : 음...

천천히 좌종을 둘러보는 왕의 시선. 공진에게 머문다.

#25. EXT. 인점문 앞 - 낮

손끝으로 왕이 내린 버선을 들어보며 인상 쓰는 공진.
시커멓고 꼬리꼬리 해 보이는 그걸 판수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공진 : 일을 시켜놨음 돈을 줄 것이지... 뭐요, 이게?
판수 : 어휴, 이 복 받은 놈의 시키... 전하께서 하사하시는 거면 웬...
버선이 아니라 똥 기자귀라도 가문의 영광인 법이거늘...
공진 : (내밀며) 아, 그럼 가지시던가... 내가 뭐 그지 새끼도 아니고...

그때 공진의 눈에 들어오는 궁녀들을 이끌고 가는 왕비.
멍한 눈으로 왕비를 바라보는 공진을 판수가 뭐하냐며 잡아끈다.

#26. INT. 상의원 의대실 - 낮

인사하고는 나가는 침선비들. 문이 닫히자 돌석 혼자만이 남는다.
의대실에 가득 걸린 용포들 한 가운데 걸려있는 공진이 만든 면복을 보는 돌석.
조심스럽게 면복에 손을 대 바느질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보는 돌석의 손.
멍칫하더니 옷감의 안쪽을 보자 반박음질로 된 바느질 자국이 나타난다.

돌석 : 반박음질이라... 방자한 놈, 감히 에서 이딴 편법을 써?

패심해하며 돌아서려다 멍칫하더니 다시 면복을 보는 돌석.
어깨 안쪽부터 소매, 허리 선 등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본다.

돌석 : 헌데 옷본도 없거늘... 전하의 옥체조차 뵈 적이 없는 자가... 치수는 어이 알고?

INS> 불에 탄 면복 조각을 배열하는 공진. 그걸 토대로 전체 모양을 그리더니 치수를 적는다.
그리고 비단에 거침없이 가위질 하는 공진. 궁녀들에게 수를 놓게 시키고 바느질을 시작하면.

놀란 눈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 면복의 전체를 바라보는 돌석.
그러자 걸려있는 다른 왕의 옷들 사이에서 뭔가 달라 보이는 왕의 면복.
희미한 불빛 때문인지 면복만이 그곳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는 듯 보인다.
나가려던 걸음을 멈춰 다시 돌아보는 돌석. 공진이 만든 면복을 바라본다..

#27. EXT. 취향루 뒷마당 정자 - 낮

따스한 햇살 아래, 정자 처마 끝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보는 시선.
월향의 무릎에 누워있던 공진의 눈에 판수가 보이자 "에이..." 하며 돌아눕는다.

판수 : 너 인마, 왜 안 나오는데? 전하께서 친히 사냥복을 만들라 하신 거 못 들었어?
어명이 뭔지 또 알려줘?

공진 : 아, 한번만 도와달라매... 사람이 많아... 난 모르니까 알아서 하슈.

계속 월향의 무릎에서 등 돌리고 있는 공진. 판수 감감해하며 그냥 가려다가.

판수 : 아, 새끼 진짜... (뭔가 깨내며) 안마, 이거나 발마. 마마께서 내리신 건데...
뭐 나중에 마음에 드는 처자가 생기면 주라하시더라...

공진 : (관심이 있지만 없는 척 하면) ...

오랫 문양 수놓아진 비단으로 쓴 뽕가를 던지더니 쫓쫓거리고는 가는 판수.

궁금하지만 돌아보지 않는 공진. 월향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대신 훑어본다.

월향 : 어머, 이젠... 봉황이 새겨진 봉장이 아니옵니까?

슬쩍 보는 공진. 황금에 정교하게 봉황을 새긴 기다란 비녀가 보인다.
봉장 살펴보더니 자기 머리에 꽂아보려 하는 월향. 공진 벌떡 일어나 뺏는다.

월향 : 치... 어디 숨겨둔 처녀라도 있으신 모양입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드러눕는 공진. 높이 하늘 위에 구름을 바라본다.

#28. INT. 탕옥 - 밤

INS> 가마에 불을 지피는 머슴들. 탕옥(湯屋)이라 적힌 깃발이 석양 아래 나부낀다.

하얀 천을 아랫도리에 두르고 들어와 뜨거운 탕 안에 몸을 담그는 돌석.
하루의 피로가 가시는 듯 “고웅...” 하는 소리를 내며 등을 기대다.
그 순간 물속에서 “푸악~!” 하고 튀어나는 한 남자. 공진이었다.
놀란 돌석 앞에서 얼굴에 묻은 물기를 씻어내더니 벌떡 일어나는 공진.
그의 아랫도리를 본 돌석, 마치 엄청난 것이라도 본 듯 눈이 커지면...

코앞에 돌석을 보지 못한 듯 아무렇지 않게 알몸으로 탕에서 나가는 공진.
탄탄한 자신의 몸을 뽐내듯 어깨를 휘두르며 밖에서 걸어 나간다.
한참을 그런 공진을 돌아보다 문득 늙은 자신의 몸을 보는 돌석.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듯 물속에 깊이 몸을 담근다.

#29. INT. 상의원 - 낮

내밀고 있는 자그마한 여자아이의 손을 때리는 회초리.
침선비 차림의 유월이를 혼내던 대길이가 돌석을 보곤 인사한다.

대길 : (돌석 시선에) 지난 번 용비전에서 일로 쫓겨나 오게 된 아이인데...

빨갛게 회초리 자국이 난 침선비 아이의 손을 보는 돌석.

돌석 : 네 이름이 무엇이나?
유월이 : (흠뻑이며) 소녀, 유월이라 하옵니다...
돌석 : 바느질하기 좋은 손이로구나.
유월이 : 네?

아련해하는 돌석의 눈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오른다.

#30. (동탄주) 돌석의 과거

시장바닥

시장 구석에 쪼르르 앉아있는 거지 아이들. 중년 차림의 중년 여자가 나타난다.
아이들의 손을 내밀게 해 하나하나 살펴보는 여자. 한 손을 보곤 멈칫하면.
시커먼 얼굴을 하곤 손을 움츠리는 돌석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는 여자.

여자 : 바느질하기 좋은 손이구나.

비단가게 침방

깨끗하게 씻긴 돌석을 캄캄한 침방 안에 밀어 넣는 여자.

여자 : 오늘부터 일할 아이니라.

문이 닫히자 바느질을 하던 십 수 명의 어린아이들이 돌석을 쳐다본다.
겉먹는 돌석에게 다가와 미소 지어주는 두어 살 많아 보이는 소녀 월선.
말간 얼굴로 돌석에게 뽀뽀를 내미는 월선. 정성껏 만든 바늘 썸지가 들려있다.

월선 : 앞으로 실이랑 바늘이랑 다 여기다 넣어두면 돼... 알았지?

예쁜장한 월선을 보며 설레는 얼굴로 바늘 썸지를 받는 돌석.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는 바늘 썸지... 어느새 빨갛고 고운 땀방울이 된다.
월선의 머리에 땀방울을 달아주며 연모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청년 돌석.
두 사람, 수줍게 마주보며 바느질을 한다.

비단가게 앞

가게 앞에서 기다리는 가마. 하인들 사이에 돌석이 파르르 굴어 있다.
월선이 고운 옷 입고 나와 가마로 간다. 고운 화장에 반해 서글픔이 가득한 얼굴이다.

여하인 : 월선이는 좋겠네. 대단한 양반집이라매? 여잔 이쁘고 뽀야 돼.

남하인 : 다 늙은 양반 침자리가 뭐가 부럽다고. 카아악-뽀에

주먹을 꼭 쥐는 돌석. 당장 나가서 막고 싶지만 차마 나서지 못한다.
월선을 태우고 멀어져가는 가마를 하염없이 바라보다 주저앉는 돌석.
붉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의 눈앞에 굵은살로 가득한 여인의 손이 나타난다.
고개 드는 돌석을 향해 차가운 눈으로 손 내밀고 있는 중년의 여자.
잠시 그녀를 보던 돌석이 눈물을 닦고는 그 손을 잡으면.

상의원

상궁 복장의 중년 여자를 따라 상의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돌석.

선반마다 가득한 비단들과 바느질에 매진 중인 침선장들의 모습이 압도적이다.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눅 들지 않는 눈으로 결의를 다지는 돌석.

(여자) : 억울하다 했느냐... 그럼 주상전하의 의대를 만들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양반만 된다면 누구도 너의 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31. INT. 상의원 - 낮

회상에서 깨어난 돌석, 판수와 티격태격하며 들어오는 공진을 발견한다.
공진의 몸에 걸쳐진 녹색 관복을 뺨히 보는 돌석.

판수 : 아... 거 아직 제조영감께 말씀 못 들으셨나 보네...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잘 좀 가르쳐주시고..
돌석 : 어제 시킨 일은 어찌되었느냐 어서 비단을 가져오너래

판수 말하는데 갑자기 장인들과 침선비들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는 돌석.
공진의 시선을 의식하며 장인들이 가져온 비단과 가죽신 같은 걸 검사하더니
침선비들이 가져온 비단들 중 몇 개를 의대물에 걸어놓고 이리저리 배치해본다.
썸지에서 다 닳아 짧아진 가위를 꺼내 비단을 잘라내더니 침선비에게 주는 돌석.

판수 : 거 사람 참... 아침부터 뭘 일을 한다고... 아, 아 인마 너 뭐해?

흔자 상의원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공진을 쫓아가는 판수.
돌석, 비단조각들 위에 옷본을 놓고 재단하며 공진을 흘쳐본다.

#32. INT. 상의원 일각 - 밤

인사하고는 퇴청해나가는 침선비들. 분주하던 상의원이 한산해졌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원가를 하고 있는 공진과 판수.

판수 : 전하의 얼굴은?
공진 : 용상...
판수 : (책으로 탁 때리며) 용안... 전하의 손은?
공진 : 용수...
판수 : (또 탁) 어수 그럼 발은?
공진 : (귀찮아 족꺾다 장난치며 먼지는 말) 족... 족... 족발?
판수 : (탁탁탁 때리더니) 족장! 족장이라 몇 번을 말해 웅?

“에이, 씨!” 하고 공진이 성질내자 순간 움찔하는 판수.

공진 : 아, 쫘! (그러더니) 우리도 그냥 가죠?

판수 : 안 돼. 이거 다 외우기 전엔 못 가.
공진 : 씨... 그것도 어떨이오?
판수 : 얼... 이제 잘 아네? (뺨가를 보고) 근데 그거... 그건 뭐냐?

머리를 쥐어뜯던 공진 곁에 놓인 종이를 펼쳐보는 판수.
다양한 형태의 왕실 여인을 위한 원상들이 그려져 있다.
대충 쓱쓱 그린 듯해도 어딘지 모르게 세련된 느낌의 옷 그림들.

공진 : 아, 줘요..
판수 : 옷본도 없이 옷을 어찌 만드나 했더니... 짜식, 요런 재주가 있었네?

내놓으라는 공진을 뿌리치며 그가 그린 그림들을 보는 판수.
자신의 공방에서 옷을 만들던 돌석이 조용히 그것을 바라본다.

#33. EXT. 격구장 - 낮

물려든 백성들. 오색 비단장막 아래서 기생들을 끼고 자리 잡은 양반들.
휘날리는 출마표(出馬標) 깃발 아래 응복에 붉은 머리띠를 하고 백마를 탄 왕이 선다.
그의 좌우로 말을 세우는 붉은 머리띠의 무관들. 건너편에 파란 띠 무관들이 마주서면.
화려한 색상의 치마저고리를 입고 걸어 나오는 기생. 양측 중앙에 공을 던져 굴려준다.
그러자 고향을 치며 백마를 달리게 하는 왕. 좌우 무관들도 일제히 말을 달리는데!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 속에 모래 위에 놓인 공을 낚아채는 왕의 장시(杖矢, 채)!
왕의 백마를 향해 달려드는 파란 띠의 무관들에게 붉은 띠 무관들이 말을 부딪친다.
말과 그 말을 탄 무관들의 격렬한 몸싸움 속에 공을 가지고 달려가는 왕의 백마.
왕이 힘껏 장시를 휘두르자 날아간 공이 좁은 구문(鞦門, 골대) 사이로 들어간다.
함성을 지르는 백성들. 흙먼지 속에서 왕이 웃으며 말머리를 돌리면.

다시 벌어지는 마상격구. 격렬한 몸싸움 속에 왕이 공을 향해 달려간다.
그 순간 공을 낚아채는 왕의 백마와 부딪치는 파란 띠의 무관 하나.
균형을 잃은 왕이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만다. 장막 아래서 벌떡 일어나는 영의정.

영의정 : 전하

일제히 "전하"를 외치며 무릎 꿇는 사람들. 무관들도 말에서 내려 무릎 꿇는데.
달려와 흙먼지 속에서 넘어져있는 왕을 부축해주는 대전내관.
왕이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일어나서는 내관들의 팔을 뿌리친다.

왕 : 어허, 거참... 별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무관 :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무관들 :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왕 : 일어들 나라... 어허, 어서 일어나래도..
대전 : 전하, 일단 돌아가셔서 옥체를 살피시는 것이...

그러자 대꾸 대신 돌아서는 왕. 터벅터벅 걸어가 자신의 백마를 바라본다.
어쩐지 핀이 나간 눈빛으로 싸하게 웃으며 백마를 쓰다듬는 왕.
그러다 갑자기 맨주먹으로 백마의 얼굴을 후려치는데
놀란 대전내관과 사람들 앞에서 미친 듯 백마에게 주먹질을 해대는 왕.
누구의 파인지, 붉은 핏방울들이 튀어 왕의 얼굴이 엉망으로 변한다.

대전 : 전하... 고정하옵소서... 전하

그제야 주먹질을 멈추는 왕. 움직이지 않는 백마. 왕의 주먹에서 피가 똑똑 떨어진다.
얼른 수건으로 그 피를 닦아주는 대전내관. 일동, 조용해져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
차가운 눈으로 백마를 내려다보는 왕. 대전내관의 눈짓에 병사들이 달려와 백마를 가져간다.
그제야 피가 똑똑 떨어지는 손으로 돌아서는 왕. 손짓하여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하면.
엎드렸던 몸을 일으키는 사람들 사이로 왕의 눈에 들어오는 여자아이.
병판 곁에서 고운 자태로 서서 뇌쇄적인 눈빛으로 왕을 바라보고 있다.

왕 : 저 아이는 누구냐?
대전 : (보더니) 병판 대감의 여식이라 들었사옵니다..
왕 : (묘하게 웃으며) 한 번 들라 해라. 내 애기나 좀 나눠보고 싶구나.

흐뭇한 얼굴로 병판 딸의 얼굴을 바라보는 왕.
멀리 비단장막 아래 있던 영의정이 이를 지켜본다.

#34. INT. 왕비전, 별채 - 낮

나란히 앉아있는 돌석과 공진. 공진. 발이 저린 듯 꿈지락거린다.
그러다 눈치를 보더니 책상에 놓인 책을 슬쩍 들춰보는 공진.

공진 : 손자방법이네?
돌석 : (놀란 듯 쳐다보면)
(지밀) : 증전마마 납십니다...

왕비가 들어오자 일어나 허리 숙이는 돌석과 공진. 왕비가 자리에 앉는다.

왕비 : 내 직접 인사드리는 것이 옳은 일 듯 하여 이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공진을 보며) 수고했습니다. 덕분에 큰 숨을 돌렸습니다.
공진 : 소인, 마땅히 하였을 뿐이옵니다..
왕비 : (웃더니 돌석에게 형식적으로) 아저씨도 고맙습니다..
돌석 :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공진과 돌석 앞에 놓이는 찻잔. 왕비가 미소로 둘러하면,
황궁해하며 고개 돌려 마시는 돌석과 달리 당당히 차를 음미하는 공진.

공진 : 아뢰옵기 황궁하오나 소인, 규방에 병법서가 있는 것은 처음 보옵니다..
왕비 : 그대는 사내로 태어나 어찌하여 바느질을 하십니까?
공진 : (아차 싶어 웃으면) ...
왕비 : 여인이라 해 꼭 수만 놓고 살라는 법은 없지요.. 사는 게 곧 전쟁이니깐요..
공진 : 허나, 전쟁은 속임수라고 읽었습니다..
왕비 : 맞습니다. 그리하여 싸우지 않는 걸 병법에선 최선이라 하는 거겠지요..

잠시 씩씩한 미소를 짓는 왕비를 뚫어 보는 공진.
돌석, 알아들을 수 없는 두 사람의 대화에 빨줄해하는데...

#35. EXT. 후원, 숲길 - 낮

공진 : 같이 좀 가죠?

뒷짐을 진 채 거드름 피우며 걷는 돌석. 공진이 옆에 붙는다.
그러자 좀 더 앞으로 나가는 돌석의 걸음. 공진이 다시 붙으면,
어떡해든 공진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려는 듯 속도를 높이는 돌석.
돌석, 뒤뚱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공진을 앞서 걸어간다.

#36. EXT. 후원, 정원 - 낮

지밀상궁과 궁녀들을 이끌고 정원을 지나가던 왕비. 화단의 꽃들을 보며 걷다가 발걸음을 멈춘다.
지밀, 뭐지... 그 시선 따라간다. 여러 가지 꽃들이 곱게 피어 있다.
왕비, 몸을 숙여 그 꽃들 사이에 숨어 핀 제비꽃 한 송이를 보듬어 낸다.

왕비 : 제비꽃이구나.

왕비의 마음을 아는 듯 시선 내리는 지밀. 왕비, 예쁘다는 표정보다는 그림다는 표정이다.

#37. INT. 부용정 - 낮

화창한 날씨. 부용정 안에 개인별로 차려진 작은 다과상들.
저마다 자태를 뽐내며 자리하고 있는 사대부 여인들. 도도함이 가득하다.

여인1 : 정경부인의 오늘 저고리 빛이 참으로 고우십니다.
정경 : 그러가? (기분 좋으면서도) 비단이 백필이면 무얼하나... 젊음이 곧 아름다움이지.
여인3 : 꼭 그렇다고 할 순 없지요. (눈웃음 공유하며) 증전께서 스물 칠촌이면 무엇하나요.

지아비 손길 한번 달지 않고 계신데...

정경 : 말조심 하게... 아직은 이 나라의 국모이시네. (씩- 웃으면)

여인들 : ㅎㅎㅎㅎㅎㅎ

조용히 밖에 서서 듣고 있는 왕비. 지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밀 : 마마... 길을 둘러올지...?

그러자 표정을 다시 고쳐짓고는 당차게 걸음을 옮기는 왕비.

감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여인네들이 모두 일어나며 눈치를 본다.

왕비 : (자리에 앉으며) 오늘은 무슨 차를 드시고 계십니까?

발 없는 향기가 부용정 담 너머까지 날아와 이 사람 걸음을 재촉하네요.

애써 밝은 미소를 짓는 그녀의 말에 눈치 보는 사대부 여인들.

첫잔을 잡는 왕비. 그녀들에 비해 수수한 자신의 웃차림에 씁쓸해한다.

#38. INT. 취향루, 밤 - 밤

보료에 느긋하게 기대앉은 병판. 돌석이 공손이 마주앉아 있다.

두 사람 곁에서 교태를 부리는 기생들. 돌석의 손을 본 기생이 놀라워한다.

기생1 : 세상에... 이 손 좀 보세요. 무슨 일을 하시기에... 은통 굵은살에 상처투성이입니다.

손을 거두는 돌석. 병판이 여유롭게 자신의 손을 내민다.

그러자 놀라는 돌석과 기생들. 병판의 손 역시 굵은살에 상처투성이였다.

병판 : 우리의 이 손이 어떤 손인지들 아느냐? 이것은 전하를 위해 칼을 들었던 손이고...

(돌석을 보며) 저건 전하의 의대를 만들려 평생을 바느질에 매진해온 손이나라...

보아라... 아름답지 않더냐?

감탄하는 기생들. 돌석, 진심을 다해 병판을 향해 허리 숙인다.

병판의 손짓에 일어나 나가는 기생들. 돌석과 병판만이 남는다.

병판 :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양반이 된다고? 허리, 출생신분이 뭐 중요하겠는가...

주상전하 또한 천한 무수리의 몸에서 태어나셨거늘... 그렇지 않은가?

돌석 : ...

병판 : 그대와 중전마마가 막역한 사이라는 건 내 알고 있네만.

자네도 세상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는 거 알 나이 아니더가...

씩은 동아줄은 말일세... 애시당초 잡는 것이 아니라네.

돌석 :

병판 : 내 딸 아이가 장차 새로운 중전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아니 그런가? 하하하

여유로운 웃음을 터트리는 병판 앞에 돌석. 생각이 많아 보인다.

#39. INT. 취향루, 내실 - 밤

공진, 술 상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 손자병법서를 슬렁슬렁 넘겨본다. 월향 술쩍 본다.

월향 : 갑자기 책을 읽고 그러세요? 궁에 들어가시더니 정말 양반 같네?

공진 : 양반은 무슨. 개나 주라 그래. 아나... 이게 뭐가 재밌어?

월향 : 누가 재밌다고 하는데요?

공진 : 어? 아... 뭐... (던져버린다) 아 머리아 씨. 술이나 먹자~.

술잔, 드는데 갑자기 와장창~ 하며 돌리는 여자의 비명소리. 월향이 뒤돌아본다.

#40. EXT. 취향루, 마당 - 밤

홍옥의 머리채를 끌고나와 마당에 내쳐버리는 양반1. 사람들이 나와 본다.

홍옥 : 죄송합니다... 소녀가 잘못하였사옵니다... 용서해주시옵소서... 까아악...!

흐트러진 옷차림의 홍옥을 둘러싸는 화려한 비단 도포차림의 양반들.

그중 양반1이 무릎 꿇고 비는 홍옥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다. 달려와 말리는 월향.

양반1 : 이런 개 같은 년이... 감히 이게 어떤 웃인 줄 알고 술을 쏟애!

월향 : 소녀가 변상하여 드릴 테니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양반1 : 변상? 이게 얼마짜리 웃인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냐?

네넌들 똥똥아리를 팔아놔라. 어디 살 수가 있는지...

양반1의 말에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는 기녀들.

월향 : 말씀이 좀 지나치신 듯합니다...

양반1 : 이년이 어디서...!

월향을 때리려하는 양반1의 손을 잡는 누군가... 공진이다.

양반1 : 넌 또 뭐... 애 아아아아앗...!

공진이 손아귀에 힘을 주자 아파하며 물러나는 양반1. 동료양반들이 둘러싼다.

양반1 : 네... 네 아놔! 어... 어디 천것 주제에 함부로 양반의 몸에 손을 대느냐!

여봐라 게 아무도 없느냐 어서 포청에 기벌해 이놈들을 썩...!

공진, 한 대 확- 칠 듯 주먹을 들자 워- 하며 물러나는 양반들.
그때 공진이 저만치에서 조심스럽게 병판 뒤를 따라 나가던 돌석을 발견한다.

공진 : 어? 저기요! 여기!!!

공진의 시선과 외침에 사람들이 돌아보자 난감한 얼굴로 허리를 펴는 돌석.
그 사이 가버리는 병판. 갑자기 공진이 와서는 돌석의 끝을 당긴다.

돌석 : 어허... 자네 지금 아개... 여보게...!

공진 : 니들, 다 죽었어... 이놈이 누군지 알아? 어침장이시라고 어침장!

공진의 말에 모이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헛기침만 하는 돌석.
양반들이 이걸 또 뭐야 하는 눈으로 돌석을 훑어본다.

양반1 : 오호라... 뭐하는 놈인가 했더니... 궂에서 옷을 만드는 놈이로구나...
여봐라... 뭇들 하느냐... 이 천한 놈들을 썩 내쫓지 아니하고!

그러자 양반1에게 뭐라고 조용히 소곤대는 동료 양반들. 양반1, 놀라선 돌석을 보면.

양반1 : (참더니) 좋다... 지금 네놈들이 한 짓은 눈감아주도록 하마...
허나, 내 이 귀한 옷을 망친 이년만은 절대 가만두지 않을 터...
어쩌냐... 네년 뭉뚱아리를 팔아 변상하겠느냐... 아니면 내 수청을 돌겠느냐?

홍옥 : (울먹이며) 소녀...

공진 : 아 나 진짜... 대단치도 않은 옷 하나가지고 수청을 돌려마라야...
거 다시 만들어 주면 될 거 아니외

양반1 : 만들어? 네가? 하하 네 이놈... 이게 어떤 옷인지나 알고 하는 소리냐? 이 옷으로
말할 거 같으면 명나라 시절부터 있어온 청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비단가게인...

돌석 : (나서며) 대명당에서 파는 조하금이란 최상품의 비단으로 만든 옷이올시다...

공진과 양반 기생들 모두 놀란다. 공진 흥미롭게 돌석을 본다.

돌석 : 그런데 조하금이란 예로부터 중국 황실에 진상되는 최상품의 비단을 칭하는데 여기
서 조가 우리 조선을 뜻한다는 걸... 설마 나으리께선 모르시는지요?

양반1 : 에헴 내... 내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

돌석 : (쓱 보더니) 근데 아무래도 이걸... 모양만 같지 빛깔로 봐선 그보다 못한 명주비단
인 것이... 쫓쫓쫓... 아무래도 나으리께서 속으신 듯 하옵니다...

공진 : 뭐야, 그럼 짝퐁인 거야?

돌석의 말에 양반1에게 집중되는 시선. 당황한 양반1.

양반 : 네... 네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돌석 : 소인, 궤에서 바느질 한 세월만 30년이올시다... 내기하셔도 좋습니다.

공진과 돌석 뒤로 월향을 따라 일제히 도열하여 서는 수십 명의 기녀들.
그 기세에 물린 양반들이 시선을 피하자 우쭐해지는 공진, 돌석을 보면.

#41. EXT. 취향루 앞 길가 - 새벽

취향루를 나서는 돌석을 쫓아 나온 공진. 괜히 친한 척 옆에 붙는다.

공진 : 아으...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자 걸음을 멈추는 돌석.

돌석 : 잘 들어라. 니 놈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알 바 없으나 난 어침장이니라...
너 같은 근본 없는 놈이랑 한편으로 위일 그런 인생 아니란 말이다. 알겠느냐?

그러곤 다시 걸어가는 돌석. 공진 웃으며 쫓아가면.

공진 : 에헤이, 방금 전까지 같이 재들 편 들어줬으면서...
돌석 : 어허, 이 사람이 정말...!

어둠 속에 걸어가는 두 사람의 위로 들리는 목소리.

공진 : 곧 양반이 되신다 들었습니다. (진정 축하하는 해맑은 얼굴) 양반들 웃만
지어주시다가 본인 두루마기 지어 입으면... 기분 꽤지시겠네
돌석 : 우습냐.
공진 : 우습긴요. 생각하니 기분 좋아 그렇습니다. (더 신이 나서)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놈들이 입은 도포 보셨죠? 의대의 기품도 모르는 놈들 몸에 걸쳐진
두루마기가 안쓰러운 거지.. 그걸 어침장님이 딱~하니 지어 입으면..
(방긋) 태 좀 나시겠네~

돌석, 공진의 너스레에 좀 마음이 유연해 진다. 자기도 얼핏 웃는 듯.

공진 : 이미 계획이 있으시네... 그죠? 혹 벌써 만들어 둔 거 아니에요?
돌석 : 어허... 사람 참... (걷다가) 뭐 굳이 생각을 해 본다면야...

공진, 거봐... 재밌어 하며 돌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돌석 : (꿈을 꾸듯 감미로운 상상) 최고급 옥색 비단에 소매를 여기까지 오게 크게 이렇게.

공진 : 나라면 거기에 소매 끝은 잠게하고 밑은 둥글게 퍼지게 할 거요.
돌석 : 웃고름에는 금실로 수를 놓고 허리에는 방울도 달고 말이야.
공진 : 방울은 좀 촌스럽지 않나? 욕이면 몰라도.
돌석 : (숨... 하고 패려보자) 내 웃일세!
공진 : 아, 알았수. 알았어... (흔젓말처럼) 아예 쌍방울로 달지...
돌석 : (다시 숨! 하면)
공진 : 양반되는 날 말하쇼. 이 몸이 웃 한 벌 뺨하게 만들어 드릴리니까...
돌석 : 너는 왜 사내 놈이 웃을 만드는 게냐?
공진 : 급쵸요. 뭐... 기생들한테 공술이나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키득거리며 걸어가는 둘의 뒷모습. 한결 가까워 보이는 두 남자. 시장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42. EXT. 궁궐 일각 - 낮

내관들과 궁녀들을 이끌고 산책하는 왕. 대전내관이 다가와.

대전 : 전하... 대전에서 영의정 대감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옵...

왕이 귀찮은 얼굴로 방향을 돌리자 그를 뒤쫓는 내관들.
금천교를 건너던 왕이 왕비의 일행과 딱 마주치고 만다.
비켜서 허리 숙이는 왕비를 보며 어색해하는 왕.

왕 : 오랜만이오... 잘 지내셨소?

허리 숙이는 왕비를 보며 어색하게 웃다 서둘러 가버리는 왕.
왕비, 멀어져가는 왕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43. INT. 왕비전 처소 - 밤

손자병법을 펼쳐려다 마는 왕비.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쉰다.
그러더니 문감을 열어 깊이 들어있는 바느질 상자를 꺼내는 그녀.
한때 쓰던 수틀과 바늘과 실들을 가만히 꺼내 애만저 본다.

#44. INT. 상의원 - 낮

먹고 남은 안주와 술병들. 취해 잠든 사람들로 난장판이 된 상의원 안.
들어서던 돌석. 굴러다니던 술병을 집어 들고는 냄새를 맡아본다.
판수와 함께 굶아떨어진 공진을 본 대궐에 나서려하자 말리는 돌석.

돌석 : 내비두거라...

이때 갑자기 지밀상공을 앞세워 왕비가 안으로 들어온다.

돌석 : (화들짝 놀라선) 마마,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술병 숨기며) 실은 이것이 소인이 마신 것이 아니오라...

허리 숙이려던 돌석, 손에 든 술병 때문에 어정쩡하게 있으면.
돌석에겐 관심이 없는 듯 퍼질러 잠든 공진을 보는 왕비.

왕비 : 일어나거든 전해주세요. 내게 돌라고..
돌석 : 예...?

그 말만 남기고 나가버리는 왕비. 돌석, 공진을 돌아본다.

#45. INT. 왕비전, 별채 - 낮

바닥에 코가 닿을 듯 바짝 엎드려 고개 숙인 공진.
반짝거리는 마룻바닥에 천천히 그에게 다가오는 왕비의 모습이 비친다.

왕비 : 내 수라간에 맡혀두었는데... 숙품이는 하셨습니다?
공진 : 예? (깜난다) 아, 예.... 황궁하옵니다...

자리에 앉는 왕비. 가만히 공진을 본다.

왕비 : 오늘 이리 부른 것은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공진 : (보면) ...?
왕비 : 내, 전하께 새 옷을 한 벌 받아 답례를 할까하는데...
그대가 나 대신 전하께 옷을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자 조용히 엎드려있는 공진. 지밀, 헛기침하면.

공진 : 아뢰옵기 황궁하오나... 소인, 마마께서 직접 만드시는 건 어떨까 하옵니다..
왕비 : ...?
지밀 : (이 자가 무슨 소리가 하고 보면) ...!
공진 : 꼭 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직접 만드신다면...
소인의 생각에는 전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옵니다..
지밀 : 무례하오 마마께서 친히 청하시는데...!
왕비 : (손 내밀어 막더니) 작은 것이라 하면... 버선 같은 걸 말하는 겁니까?
공진 : 버선은 매번 다른 사람에게 하사하시니... 다른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왕비 : 다른 것이라 하면..
공진 : 속곳은 어떠 하옵신지요?
왕비 : (얼굴 발그레 민망해 한다) 망측하게서리 어찌 그런 걸...

공진 : 마마와 전하께서는 부부사이시운데 망혹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왕비 : (생각하더니)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진 : 소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면)
왕비 : ...?
공진 : 마마께서 그것을 만드시는 동안... 소인 역시 중전마마께서 주상전하를 알현하실 때
입으실 수 있도록 새 옷을 하나 지어 올리고 싶사오니 부디 윤허하여주시옵소서...

자신을 향해 진심어린 목소리로 고개 숙이는 공진을 보는 왕비. 입가에 미소가 떠오른다.

#46. INT. 병판 집, 별채 - 낮

햇살이 가득한 어느 대가 집 마당. 화면, 별채 쪽을 비추면,
대청에 앉아 연문으로 치수를 적는 돌석. 대나무 발 안쪽에서 궁녀들 치수를 재고 있다.
한껏 들뜬 표정으로 속치마 입고 서있는 병조판서의 딸.

침방2 : 치마 길이 재게 돌아서시옵소서.

그러자 미소 사라지며 차갑게 변하는 병판 딸.

병판딸 : 다시 말해 보거라... 네 년이 돌아서 재연은 될 것을... 무어라?
돌석 : (보면) ...?

놀라선 허리 깊이 숙이며 물러나는 궁녀들. 병판 딸, 돌석을 본다.

병판딸 : 어침장이라 했는가? 최대한 화려하게 만들어야 할 걸세...
중전마마 못지않은 성대한 가례식이 될 테니까...

얼음장 같은 그녀의 음성에 깊이 허리 숙이는 돌석.
병판 딸, 도도함과 오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모습으로 미소 짓는다.

#47. INT. 상의원, 창고 - 밤

판수가 창고 문을 활짝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와 서는 공진. 눈 커지면,
백백하게 세워져있는 선반마다 가득한 온갖 색상의 비단들.
창고로 들어온 공진, 이곳저곳을 뒤지다 붉은 비단이 있는 선반을 찾아내면,
미묘하게 색이 다른 붉은 비단들을 뒤적이더니 그중 몇 개를 골라내는 공진.
자신의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그려대는 공진. 왕비를 위한 옷 그림들이다.
의대들에 색색의 비단들을 걸며 배색해보는 공진. 흥분되고 신난 표정이다.

#48. INT. 도가, 공방 - 밤

뭇본들을 늘어놓고 고민하는 돌석.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다 문득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돌석.

F.B>

- 판수가 보는 가운데 옷 그림을 그리고 있던 공진.

구겨진 종이들로 가득한 책상에 앉아 붓으로 뭔가를 하는 돌석.
바들바들 떨리는 붓끝으로 옷을 그려보려 하지만 뱉사리가 나고 만다.
짜증내며 구겨버리더니 나가버리는 돌석. 구겨진 종이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49. INT. 탕옥 - 밤

수증기가 자욱한 탕옥. 탕옥에 돌석이 앉아 있다. 탕옥 건너편에 남자 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나가는 청년의 뒷태. 마치 공진의 뒷태 같다. 돌석, 상체를 세우며 공진인가.. 보는데, 아는 남자와 인사를 하며 고개 돌린 청년의 얼굴은 공진이 아니다.
다시 편하게 있다가 문득 공진이 한 것처럼 탕 속으로 쭈욱 머리를 넣는 돌석.
금세 푸악—— 하는 소리와 함께 허우적거리며 올라온다.

#50. EXT. 왕비전 앞 - 낮

담장 밖에서 광충광충 뛰며 텅 빈 마당을 훑쳐보는 공진.
계속 담장 안쪽을 훑쳐보던 그의 뒤로 왕비가 다가온다.
그러다 바로 뒤에 있던 왕비를 보곤 화들짝 놀라는 공진.
엎드려야하나 숙여야 하나 몰라 엉거주춤 요상한 자세를 취하는데.

#51. INT. 왕비전 별채 - 낮

왕비 곁에 앉아 바느질을 가르치는 공진.
공진, 왕비의 아름다운 얼굴을 몰래 훑쳐본다.

왕비 : 처음 보는 바느질입니다?
공진 : (놀라선) 아, 예. 이게... 소인의 돌아가신 어머니께 배운 것이온데..
견고하기는 박음질 같으나 속도는 배나 빠른 반박음질이란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라는 말에 잠시 생각을 하는 왕비.

왕비 :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바늘을 잡지 못했네요.
저도 어머니께 바느질을 배웠어요. (먼 곳 시선 두며) 어머니는 제비꽃을 좋아하셨어요. 하여 아버님께서 어머니 누이신 곳에 제비꽃을 많이 심으시겠다 하셨는데... 정말 그러한지.. 가보지도 못하고 있네요..
공진 : (조심스럽게) 멀리... 모셨습니까...

왕비 : 아니요. 자책에 두고도... 몸은 만리 밖에 있는 것 같이 .. 떨기만 합니다.

공진, 잠시 생각을 한 후 빙그레 웃으며,

공진 : 주상전하께서도 멀리 사냥을 나가셨다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뜻인가... 공진을 바라보는 왕비.

#52. (몽타주) 왕비의 외출

왕비전

평범한 양반집 의상을 입은 왕비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지밀.

공진이 기생이 입을 벌린 화려한 웃을 꺼내 펼치자 기겁을 한다.

하지만 결국은 입게 된 지밀. 공진, 팔짱을 끼고는 그녀를 흠어본다.

공진 : 뭔가 모자란 것 같은데...

고민하다 뭔가 떠오른 듯 붓을 드는 공진. 도망치려는 지밀을 잡는다.

돈화문 앞

뒷짐 진 공진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오는 장옷을 뒤집어 쓴 왕비.

두 사람을 살펴보던 수문장이 뒤이어 나타난 여인네를 보고 기겁한다.

화려한 치마저고리에 입가에는 정까지 찢고 살랑살랑 걸어오는 지밀.

빨간 입술을 내밀며 찌-하게 왕크를 날리자 수문장 고개를 돌려버린다.

개천 앞

산속 개천에 위태롭게 놓인 돌다리를 보고 난감해하는 왕비.

공진,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칼로 깨끗하게 다듬더니 그녀에게 내민다.

그러자 수줍게 웃으며 나뭇가지를 맞잡고 돌다리를 건너는 왕비.

왕비가 건너오자 공진이 기다리던 지밀에게 나뭇가지를 내민다.

근데 지밀이 잡으려는 순간 손을 툭- 놔선 나뭇가지를 버리는 공진.

장난스런 얼굴로 손을 내밀자 지밀이 요놈 요고...하고 웃으며 손을 잡는다.

지밀을 도와주는 공진을 믿음직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왕비.

왕비 모의 묘

공진을 따라 힘겹게 숲 밖으로 나오는 왕비와 지밀.

자그마한 분묘 주변에 눈부시게 퍼져있는 보랏빛 제비꽃들을 발견한다.

모친의 묘 앞으로 걸어가는 왕비의 눈에 고이는 눈물.

무릎 꿇고 앉아 애절한 손길로 모친의 묘를 보듬는 그녀의 모습에 지밀이 눈물을 흘린다.

마치 모친의 체온을 느끼려는 듯 가만히 묘를 끌어안으며 얼굴을 대보는 왕비.

공진, 아련한 눈빛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한다.

#53. INT. 상의원, 돌석의 공방 - 낮

의대문에 걸린 반쯤 만들어진 가례복을 보는 돌석.
좌우로 침선비들이 색색의 비단들을 들고 서있다.
그 비단들을 이리저리 맞춰보지만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돌석.
지나치던 공진이 쓱 돌아와서는 쳐다본다.

공진 : 어라, 웬 가례복이래... 잠가주세요?
돌석 : (노려보면)
공진 :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이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곤 비단을 두어 개를 골라 걸쳐놓더니 가버리는 공진.
한소리 하려던 돌석, 다시 일을 하려다 공진이 골라놓은 비단을 쳐다본다.
전혀 어울리지 않던 색들이 모여 내는 묘한 느낌에 시선을 빼앗기는 돌석.
돌석의 눈에 자신처럼 시선을 빼앗긴 침선비들이 돌아온다.
손을 뻗어 공진이 고른 비단을 걸어버리는 돌석. 다른 비단으로 바꾼다.

#54. INT. 왕비전, 별채 - 낮

병풍처럼 펼쳐지는 전신거울에 비친 진홍의 비단으로 만든 새 옷을 입은 왕비.
짧아진 저고리 옆으로 물고기 배처럼 볼록하게 만들어진 소매하며 풍성한 치마...
지금껏 보지 못한 과감한 색상과 디자인에 왕비의 눈이 거울 속 자신에게서 벗어날 줄 모른다.

왕비 : 저고리보다 길이가 참으로 짧습니다. 지밀... 이러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지밀 : 소인 역시 처음인줄 아뢰옵니다...

자신의 옷에 반한 듯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왕비를 보고는 미소 짓는 공진.
왕비, 환한 얼굴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55. EXT. 병판 집 마당 - 낮

문 앞에 물려든 구경꾼들. 호숫해하는 병판 앞에서 화려한 가례복을 입고 나오는 병판 딸.
궁녀들의 부축을 받아 커다란 가마가 기다리는 마당으로 내려오며 미소 짓는다.

#56. EXT. 후궁전 앞 - 낮

병판딸 : 이... 이게 무어란 말이나?!

화려한 가례복을 입은 병판 딸. 후궁전 마당에 조출한 혼례상 차려져 있다.
왕과 대신들 대신 혼례상 앞에 서있는 상궁들과 궁녀들.

상궁2 눈짓에 궁녀들이 병판 딸을 혼례상 앞으로 인도한다.
병판 딸, 움부림 쳐보지만 이랑곳하지 않고 끌고 오는 궁녀들.

병판딸 : 놀아라 이년들 놀지 못하겠느냐

상궁2 : 종전마마께서 하해와 같은 은덕을 베풀어 정2품 소의(昭儀)로 명하라 하셨습니다.

병판딸 : 전하... 전하는 어디 계신 게냐 전하를 불러다오 전하니 전하-아니

움부짚는 병판 딸 앞에 놓이는 고이 접은 왕의 곤룡포와 익선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병판 딸, 울음을 터트린다.
서글프게 우는 병판 딸을 부축해 곤룡포에다 절을 시키는 궁녀들.
신랑인 왕도 없이 그녀의 혼례식은 그렇게 치러진다.

#57. INT. 왕비전 - 밤

어두운 왕비전 안. 공진이 만들어준 새 옷을 입고 촛불 곁에 앉아있다.
술품이 가득한 눈으로 종이상자를 열어 자신이 만든 왕의 속곳을 보는 왕비.
썩쓸한 미소를 짓다 자신도 모르게 나오려는 눈물을 참는다.

#58. INT. 후궁전 침소 - 밤

몇 개의 촛불만이 밝혀진 어둡고 넓은 침소 안.
비단금침 위에 소의가 된 병판 딸이 앉아 눈물을 뒤고 있다.

#59. INT. 또 다른 후궁 침소 - 밤

요염한 속치마차림을 한 후궁의 무릎을 베고 누워 술잔을 들이키는 왕.

(대전) : 전하...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소의마마께 드셔야 할 시간이옵니다...

귀찮다는 듯 일어난 왕이 대충 곤룡포를 걸치며 방을 나선다.
그러자 아쉬워하는 얼굴로 떠나는 왕을 바라보는 후궁.

#60. INT. 후궁전 침소 - 밤

몇 개의 촛불만이 밝혀진 어둡고 넓은 침소 안.
혼례복차림의 병판 딸이 치욕과 모멸감이 가득한 얼굴로 꺾꽂히게 앉아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왕. 병판 딸, 긴장하며 숨을 가다듬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술상을 발로 툭 밀더니 병판 딸을 와락 눕히는 왕.

병판딸 : 전하... 아직 옷을...

하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병판 딸의 치마를 마구 걷어대는 왕.
당황해하는 병판 딸을 아랑곳하지 않고 속곳만 내리더니 그대로 정사를 시작한다.
고롱스러워 터져 나오는 비명을 겨우 막는 병판딸...
반면 왕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냉랭하고 고집스럼기만 하는데...
흔레복 사이로 애처롭게 흔들리는 어리고 하얀 병판 딸의 다리.
병판 딸의 얼굴에서 눈물이 다시 똑똑 흘러내린다.

CUT. TO :

소의 곁에 보이는 빨간 피가 묻은 바닥 요.
흔레복을 벗지도 못한 채 앉아있는 소의. 수치감을 감추기 어렵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을 추스르더니 나가버리는 왕.
내관들이 들어오더니 공손히 피 묻은 바닥 요를 들고 물러나 나가버린다.

소의 : 왕비가 벌 거야... 나도 될 수 있어... 될 수 있다구...

#61. INT. 왕비전, 별채 - 낮

돌석에게 바느질을 배우기 위해 대청에 모여 앉은 사대부 여인들.
하라는 바느질은 하지 않고 공진이 지어준 왕비의 새 옷을 구경하느라 정신없다.

여인1 : 이런 모양은 처음 보옵니다... 어찌 소매를 이렇게...

여인2 : 색은 또 어떨습니까... 끈기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여인네들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쓸쓸한 미소만 짓는 왕비.
호들갑떠는 여인네들 사이에서 돌석의 시선이 왕비에게 가서 박힌다.
여인네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진홍빛 비단으로 만든 왕비의 치마저고리.
돌석의 눈이 그녀의 옷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62. INT. 상의원 - 밤

저고리 뒷쪽에 자그마한 고사리 문양을 수놓고 있는 공진. 돌석이 나타난다.

돌석 : 자네... 나랑 얘기 좀 하세.

공진 : ...?

돌석 : 자네가 지어 올린 중전마마의 의대 말일세... 어찌 마마의 의대에 그리도 과한 색을
썼단 말인가. 게다가... 그 저고리... 그 저고리 길이는 당채 뭐란 말인가!

공진 : (말간 얼굴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돌석 : 옷이란 자고로 입는 이의 자취를 말해 주는 것임을 모르는가!
하물며 중전마마의 의대이거늘! 어찌 저리도 천박하게...

공진 : 천박이라뇨? (벌떡 일어나면)

마주 서는 공진과 돌석.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마주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공진의 반응에 괜히 먼저 시선을 피하는 돌석.

돌석 : 앞으로 마마의 의대를 지을 땐 반드시 내 허락을 받도록 하게 앞섰는가?

그리곤 나가버리는 돌석. 공진, 어이없어 한다.

#63. INT. 상의원 밖 - 밤

돌석, 화가 난 걸음 멈추고 뒤돌아본다. 꽤심하다. 화가 난다.
거친 발걸음으로 상의원 앞을 떠나는 돌석. 괜한 돌부리를 걸어찬다.

#64. INT. 왕비전 별채 - 낮 (비)

비 내리는 소리 들린다. 여전히 공진이 만들어준 새 옷을 입고 있는 왕비.

왕비 : 전하께선 대전에 계시는가?

지밀 : (망설이다) 비가 내려... 소의마마의 처소로 가셨다 하옵니다...

그러자 작은 한숨을 내쉬는 왕비.

왕비 : 열여섯이라지...?

지밀 : ...

왕비 : 피부가 하얀 산양처럼 희고 보드랍다더구나...

지밀 : 마마께서도 아직 그에 못지않습니다.

쓸쓸히 웃음 짓는 왕비. 그저 창밖만 바라본다.

#65. EXT/INT. 부용정 - 낮

지밀 : 마마, 이번 것도 역시 실로 아름답사옵니다...

바닥에 넓게 펼쳐진 왕비를 위해 만든 또 다른 새 치마저고리와 원삼.
공진, 지밀의 칭찬에 고개 숙인 채 미소 짓는데 왕비는 그냥 지나쳐간다.
고개들어보는 공진의 눈에 보이는 정자 밖을 내다보는 쓸쓸해 보이는 왕비의 모습.
부용지 연못가에 묶여있는 작은 조각배를 보는 왕비.

공진 : 저... 주상전하께는...?

왕비 : (자르며) 혹 배를 저울 줄 아시는지요?

#66. EXT. 부용지, 조각배 - 낮

연못 가운데 울창한 소나무 심어진 작은 섬이 있는 부용지.
작은 조각배가 연못 위를 가득 채운 녹색의 연꽃잎을 가르며 흘러간다.
왕비와 단둘이 조각배에 올라 노를 젓는 공진.
지밀상궁과 궁녀들, 멀리 연못가에서 조각배 따라 걸어오고 있다.

공진 앞에 앉아 눈을 감고는 따뜻한 햇살 느껴보는 왕비.
지밀과 궁녀들, 조각배 점점 멀어지자 걸음을 서두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금세 소나무 섬 뒤로 사라지는 왕비와 공진 태운 조각배...
궁녀들과 뒤쫓던 지밀, 발걸음 돌려 반대쪽으로 향한다.
뻑뻑하게 기울어진 소나무 가지 그늘 지나는 조각배.
묵묵히 노를 젓는 공진. 잠시지만 왕비만 단 둘이 남게 된다.
그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에 미소 짓다 왕비에게 시선을 던지는 공진.

공진 : ...?

왕비의 두 눈이 빨강게 물든다. 축축하게 눈물을 머금은 슬픈 두 눈.
애써 눈물을 참고 있지만, 그래서 더 슬퍼 보이는 왕비의 얼굴과 두 눈.
그녀를 바라보던 공진, 노를 젓고 있던 손을 멈춘다.
그러자 천천히 흘러가다 나무 그늘 속에 멈추는 두 사람을 태운 조각배.
두 사람만이 있는 적막한 그곳에 왕비는 죽을힘을 다해 눈물을 참고 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뚝 흐르는 눈물 한 방울. 손으로 급하게 눈물을 닦으려는데,
공진이 품안에서 새하얀 손수건을 꺼내 건넨다. 보랏빛 제비꽃 수가 보인다.
왕비, 손수건 받아서 펴보자 모서리에서 시작된 제비꽃들이 아롱답게 수놓아져 있다.
그러자 왈칵 눈물을 쏟아내는 왕비. 고개 숙인 채 하염없이 흐느끼는데...

왕비의 처연한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는 공진.
두 사람을 태운 작은 조각배가 나무그늘 아래에 멈추어 떠있다.
그 잔잔한 물결 위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며 떨어지는 작은 빗방울...
금세 굵은 빗줄기로 바뀌며 나뭇잎들을 적시면...

#67. EXT. 상의원 뒷마당 - 낮 (비)

긴 장대에 걸어진 색색의 긴 비단 옷감들을 적시는 빗줄기.
침선비들과 장인들이 바빠 뛰어다니며 걷어내느라 분주하다.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담배만 피우고 있는 판수.

판수 : 애헤이... 거 염색 다 빠지겠네... 아야, 저거부터 얼렁 걷으라니까

겉에 와서 서는 공진.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비 내리는 정경을 바라본다.

판수 : 에이, 씨... 비 오니까 또 박 참봉 네 후처로 들어간 매월각 수량이 생각나네...
공진 : 월까...
판수 : 왜긴 이눔아...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준 애니까 그렇지...
개가 살집은 조금 있었는데 아주 피부가 보얀 것이...
공진 : 중전마마는 왜 그리 슬픈 걸까요...
판수 : 중... (꿀아보더니) 아, 자식... 사람 분위기 잡고 있는데... 췌 인생이란 게... 원래 신분고하에 상관없이 다 사연이 있는 법이 거다... 그 어린 나이에... 지아비 손길 한 번 못 받고 사시니... 통곡할 일인 거지...
공진 :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 고우신데.

- 연자곤지를 찍은 가례복의 왕비. 어두운 신방에 홀로 외로이 앉아있다.

(판수) : 그걸 우리 같은 놈들이 어찌 아냐... 소문엔 뭐 첫날밤부터 그랬다더만...

비를 바라보는 공진. 자기 것처럼 걱정이 되는 착잡한 얼굴이다.

판수 : 게다가 소박맞은 것도 뭐한테 어린년한테 그런 꼴까지 당하셨으니...
공진 : 그게 뭘 소리요? 아, 뭘 소리냐고-
판수 : 아... 새끼. 왜 소리는 지르고.. 거 왜 새로 온 후궁 애 있잖아. 개 때문이지 뭐...

INS> 지밀상궁과 함께 궁녀들을 이끌고 산책을 하던 왕비.
사대부 여인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오던 소의와 마주친다.
슬쩍 왕비를 보더니 인사도 없이 하던 얘기를 계속하며 그냥 지나치는 소의.
사대부 여인들만 당황한 얼굴로 인사 올리더니 소의를 쫓아간다.
그러자 "저런 무엄한...!" 하며 나서려는 지밀상궁을 말리는 왕비.
멀어져가는 소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데.

(공진) : 어찌 마마께 감히...

(판수) : 뭐 그 어린년이 이제 마마를 쫓아내고 자가 그 자리에 오르겠다는 거겠지.

#68. EXT. 상의원 앞 - 낮

상의원 앞에 기대서서 어딘가를 응시하는 공진.

공진의 시선, 상의원 앞을 바빠 지나가는 궁녀들과 무수리들에게 향해있다.

INS> 갑자기 벌떡 일어나 월향을 뚫어 보는 공진.

공진 : 너는 어찌 나이가 들어서도 저런 새파랗게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항상 제일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게냐?

월향 : 호호호호... 어찌 그것이 궁금하신지요?

공진 : 그냥 좀 말해 보거라... 도대체 어떤 비방이 있는 게냐?

월향, 뒤달하는 공진을 보며 웃으면.

하나같이 폭이 좁은 치마에 허리까지 내려오는 단정하고 긴 저고리차림인 궁녀들.
그때 한 무수리가 공진의 눈에 들어온다. 제법 눈에 띄는 미모를 지닌 무수리1.

(월향) : 비방이란 게 뭐 있습니까... 그저 새로 온 아이에게 손님이 물려 안하무인이 되면...
더 어리고 예쁜 동기 아이들을 내보내 빼앗으면 되는 것을... 그럼 새로 온 아이도
저에게 복종하고, 어린 동기 아이들도 제 눈에 들어야 좋은 손님을 만나 머리를 올
릴 수 있으니... 다들 저를 극진히 모실 수밖에요.

#69. INT. 상의원 - 낮

치마폭을 늘리고 주름까지 잡아 풍성하게 변한 파란 치마.
하얀 치마말기가 보일 듯 말 듯 가슴께까지 짧아진 옥색저고리.
무수리1, 새로 고친 치마저고리가 어색하여 어쩔 줄 몰라 한다.

공진 : 왜? 별로야?

무수리1 : 그것이 아니오라...

바뀐 옷차림이 걱정되는 듯 연신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무수리1.
공진, 팔짱을 끼고 서서 늘씬해진 무수리1의 자태를 감상한다.

#70. EXT. 궁궐 세담장 - 낮

앞치마 매고 빨래 너는 무수리1. 다른 궁녀나 무수리들과 확연히 늘씬해 보인다.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다 무수리1에게 물을 확 끼얹는 무수리들.
물에 젖은 무수리1을 비웃던 다른 무수리들이 왕이 나타나자 놀라 허리 숙인다.
쫄딱 젖어 가녀린 몸매와 볼긋한 가슴 드러난 무수리1을 보는 왕.

왕 : 네 이름이 무엇이나?

무수리들 : (놀라면) ...!!

#71. 숨은 입는 궁녀들 (웅타주)

(1) 대전 침소 - 밤

- "전하"를 찾는 무수리1의 거친 숨소리 속에 침소 앞에 앉아있는 상궁1과 궁녀들.

(2) 세담장 앞 - 낮

- 후궁이 되어 비단 당의를 입은 무수리1. 세답장 공녀와 무수리들이 부럽게 바라보면.

(3) 상의원 앞 - 밤

- 주변 살피며 와선 상의원 문 두드리는 무수리와 공녀들. 공진 내다본다.

(4) 상의원 안 - 밤

- 줄지어 기다리는 공녀와 무수리들. 탁자 가득 옷들 쌓여있다.
- 그 옆에서 방새워 바느질 하는 공진. 옆을 보면 금가락지를 놓여있다.

(5) 애련정 - 낮

- 영의정들과 술잔 기울이는 왕. 안주 뉘주는 수라간 공녀 저고리 사이로 속살 보이는데...
- 잠시 하던 것을 멈추고 공녀를 보는 왕과 대신들. 수라간 공녀, 제법 예쁘게 생겼다.

(6) 책고 안 - 낮

- 책을 읽다 말고 시선 돌리는 왕. 공녀 하나가 책을 찾으려 팔을 들자 속살이 살짝 보인다.

(7) 대전 침소 - 밤

- 침소 앞에 앉아 전하를 찾는 공녀의 소리를 듣는 상궁1.

(8) 후원 정원 - 낮

- 비단 당의를 입고 후궁이 된 수라간 공녀와 책고 공녀.

(9) 상의원 안 - 밤

- 젊은 공녀들에게 새로 고친 치마를 주는 공진. 상궁1이 들어오자 공녀들 도망치듯 나가면.
- 다들 나간 걸 보곤 무서운 눈으로 공진에게 다가와 원가를 내미는 상궁1. 커다란 금비녀다.

(10) 후원 정원 - 낮

- 짙어진 당의와 저고리 입고 당당히 공녀들 이끌고 가는 짙어진 상궁1.
- 허리 숙인 대전내관 옆에서 지나는 공녀들 보며 헛기침하는 영의정과 대신들.
- 손가락질 하는 그들 앞에서 바람에 치마가 날려 공녀들의 속곳이 보인다.
- 그러자 흥분한 듯 일제히 허리 숙이는 영의정과 대신들. 자세가 딱 내시와 같은데.
- 혼자만 멀쩡히 서있는 들석. 눈살을 찌푸리며 공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11) 후궁전 침소 - 밤

- 날이 밝아오도록 홀로 왕을 기다리던 소의. 무서운 눈으로 보료를 움켜쥔다.

(12) 취향루 내실 - 밤

술잔을 든 채 가만히 월향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던 공진.
갑자기 벌떡 일어나 뭐가 그리 즐거운지 "푸하하하" 웃음을 터트린다.
그러다 다시 정색하며 월향의 무릎에 눕는 공진.
하지만 영 웃음을 참을 수 없는지 다시 킁킁거리기 시작하는데.

미친놈처럼 그러길 반복하는 공진... 이유를 알 수 없는 월향은 왜 그러나 싶다.

#72. EXT. 후원 정원 - 낮

성난 얼굴로 상궁과 궁녀들 이끌고 걸어가는 소의.
비단 당의를 입고 궁녀 하나와 산책하던 무수리1 발견한다.
놀라선 허리 숙이는 무수리1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는 소의.
미친 듯 넘어져 우는 무수리1 때리며 옷을 찢는다.

소의 : 너 따위 천한 년이 감히 전하께 꼬리를 채

어쩔 줄 몰라 하던 상궁과 궁녀들, 누군가 보고 놀라 허리 숙인다.
그러자 손을 멈추는 소의. 돌아보니 왕비가 궁녀들과 와있었다.
공진이 만든 옷을 입고 더 위풍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왕비.
씩씩거리는 소의 앞에서 울고 있는 무수리1을 보는 왕비.
조용히 눈짓하자 지밀상궁이 나서더니 다짜고짜 소의의 뺨을 후려친다. 짹-

소의 : (놀라선) 네... 네 이년! 지금 무슨 짓을...!

짹!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한 대 더 때리는 지밀. 짹-짹-짹-!
소의 말할 사이도 없이 지밀의 손바닥이 계속 그녀의 뺨을 때리는데.

소의 : 여봐라! 뭐하느냐! 당장 이년을 막지 아니하고!

하지만 차가운 왕비의 눈빛에 감히 나서지 못하는 소의의 상궁과 궁녀들.
울부짖는 소의. 지밀의 손이 다시 한 번 그녀의 뺨을 후려친다. 짜악-!!

#73. EXT. 시장 - 낮

가게 돌아오던 돌석. 대길에게 옷 그림을 흔들어대는 사대부 여인들을 본다.

대길 : 송구하오나 소인의 가게에선 이런 건 아니 만드웁니다...

여인1 : 이런 거? 자네 이게 어느 분의 건지나 알고 하는 소린가?
바로 종전마마께서 입으신 옷이란 말일세

여인2 : (둘러보더니) 안목하고는...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듯합니다...

가게를 떠나는 여인들 앞에서 대길을 보는 돌석. 대길, 난처해하면.

CUT. TO :

곧목을 나오는 돌석과 부딪히며 지나가는 사대부 여인들.
돌석, 짧은 저고리하며 어딘가 옷차림이 달라졌음을 알아차린다.

웃을 고르는 사대부 여인들로 가득한 공진의 가게를 보는 돌석.

대길 : 놈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나서셔야 하는 것 아니옵니까...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그 자리를 뜨는 돌석. 대길,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간다.

#74. EXT. 월터 - 낮

호랑이가 그려진 과녁에 화살이 꽂히자 깃발을 흔드는 병사. "명중이오-!"
대전내관이 건네는 화살을 받아 화살촉을 살피는 왕 옆으로 영의정과 대신들이 보인다.

왕 : 영상... 사대부란 자들은 참 할 일이 없는 자들인가 보오..
한낱 여인네들의 웃차림을 가지고 상소나 올리고 말아야..
영의정 : 한낱 여인네가 아니라 중전마마입니다. 지금 궐 밖에선 마마의 웃차림을 따라하
느라 사대부 여인네들의 사치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전하..
뿐만 아니오라 선왕전하를 따르는 우리들은 중전께서 아직 후사가 없으신 것까지
전하의 뜻이라 하며 공공연히 사대부들을 현혹하고 있사오니..
어서 마마를 폐위 하옵시고 소의를 그 자리에 올리시는 것이...

왕, 귀담아 듣지 않는지, 화살촉만 매만지고 있다.

왕 : 스치기만 해도 유혈이 낭자하겠어. 축이 아주 좋구만.
영의정 : 전하 소신들 간곡히 청을 드리오니 부디... (하는데)

사나운 왕의 눈빛. 활을 끼워 팽팽히 당긴다. 당장이라도 튀어 나갈 거 같은 위험적인 화살 축.
왕, 당긴 겨논다. 모두 긴장.... 왕, 활을 머리 위로 들어 쏘버린다.
그러자 놀라선 고개를 돌려다 차마 돌지 못하고 허리 숙이는 영의정과 대신들.
하늘 높이 올라갔던 화살이 다시 떨어지며 정정 날카로운 바람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긴장된 얼굴로 눈동자를 굴리다 자신도 모르게 왕에게서 뒷걸음질 치는 대신들.
호위내관들과 궁녀들만이 두려운 얼굴로 고개 숙인 채 점점 가까워져오는 화살소리를 듣는다.
왕, 어디로 떨어 질지 모르는 화살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듯 콧웃하게 서서 영의정을 본다.
화살촉 보다 무서운 왕의 두 눈...

차가운 왕의 시선 속에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버티보는 영의정.
두 눈을 꼬옥 감은 채 바들바들 떨며 참고 있는 궁녀들의 치마 밑으로 소변이 흘러나온다.
순간 왕의 발치에 화살이 떨어져 꽂히자 화들짝 놀라 찌빠지고 마는 대신들.
영의정, 끝까지 피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 결국 한 걸음 물러나고 만다.
왕이 씨익- 웃으며 자리를 뜨자 그만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는 영의정. "대감! 괜찮으십니까? 대감!"
호위내관들과 함께 휘청거리는 서로를 부축해가며 왕의 뒤를 따라가는 궁녀들.
영의정, 두려움의 눈빛으로 멀어져가는 왕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75. INT. 회정당 - 낮

긴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왕의 치수를 재는 둘석.
비단 권척(줄자)을 펼쳐 왕의 발끝에서 무릎, 무릎에서 허벅지, 그리고 허리까지...
부분 부분 재 치수를 합한 숫자를 삐뚤빼뚤한 언문으로 종이에 적는다.

왕 : 두렵나?

치수를 재다 멈칫하는 둘석의 손끝.

둘석 : (눈빛 흔들리며) 무슨 말씀이오신지...

왕 : 모두 그대가 어침장이라고 하는데 그 말들이 허울뿐인 것 같아 두렵나 몰랐다.

둘석 : 소신, 그저 어침장으로서 의복으로 인해 골내 기강이 무너지는 걸 간파할 수 없어...

왕 : 나는 두렵다...

둘석 : ...?

힘없는 눈으로 어딘가를 바라보다 입을 여는 왕.

왕 : 처음 우리가 만난 날을 기억하는가?

둘석 : 소신, 똑똑히 기억하옵니다...

왕 : 어째서지?

둘석 : 소신, 처음으로 혼자 만들어낸 옷이 전하의 의대였기 때문이옵니다...

왕 : (아득하게 회상하며) 맞아... 그대가 열일곱... 나는 고작 다섯 살이었을 거야...
돌아가신 형님께서 세자로 책봉되던 바로 그 해였지...
그때였을 거야... 내 처음 권력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이.

둘석, 지난 이야기들을 왜 하는지 귀를 기울인다.

INS> 큰 왕자(10살)와 경상하는 작은 왕자(5세). 보모상궁 둘이 수발을 든다.
왕의 이야기에 따라 진행되는 두 왕자의 식사 장면.

(왕) : 하루는 형님과 점심수라를 함께 하게 되었고...

한창 고기에 맛이 들었던 나는 보모에게 갈비를 달라했지.

근데 말이야... 이상하게 주절 얹더라고...

평소 같으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살을 발라주던 사람인데 말이지...

왜인지 아냐? (웃더니) 내 형님께서 먼저 먹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이야.

왕, 담담하지만 날카로운 축이 있는 눈으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왕 : 나와 달리 병약하시던 형님은 평소 고기를 좋아하시지도 않으셨어...

보모상궁이 쥘뵈야 한두 번 씹고는 뱉더라고.. 질기다며..
근데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일부러 그러셨던 거지..
같은 왕자지만 자신과 달리 천한 무수리를 어미를 둔 나에게..
자신이 세자란 걸 알려주려고.. 권력의 무서움을 알려주려고..
바로 자기가...! 이 나라의 지존이란 걸 알려주려고 말이야

돌석. 미간에 두려움과 야릇한 고집이 고인다. 왕의 마음에 이입되는 돌석.

INS> 큰 왕자 앞에 쌓인 썩다 뻔한 고기들. 딱 한 조각의 갈비만 남아있다.

(왕) : (웃으며) 그렇게 모든 고기를 못 먹게 만드신 형님께서..
딱 한 조각만은 남겨놓으시더군요.. 그러곤 내게 뭐라 하셨는지 아냐?
큰왕자 : 너 먹어...

다시 희정당 안.

왕 : 너 먹어... (웃더니) 내가 어찌 했을 것 같나?

INS> 갈등하며 남은 갈비 하나를 보는 작은 왕자. 하지만 먹지 않는다.

싸한 미소를 짓는 왕, 돌석을 돌아본다.

왕 : 병약한 형님은 결국 아침 햇살에 말라버린 이슬처럼 사라졌는데도... 이 모든 게 아
적도 내 것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다... 그것이 날 두렵게 하는 구나...

돌석, 왕의 고백이 더 가슴에 쏙힌다.

왕 : 그 많은 문무백관들을 갈아치웠지만 내, 너만은 남겨둔 이유를 아느냐?
바로 내게 처음으로 내 것을 만들어준 자여서이니라...

왕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마지막 치수를 재고는 물러나는 돌석.

왕 : 웃이 문제라 했느냐? 사대부 놈들 소리야 들을 거 없다만... 권의 기강에 대한 얘기
라면 다르지... 허나 내 굴이 나설 일은 아닌 듯하니... 알아서 하도록 하라...

왕의 가벼운 손짓에 머리를 조아리고는 물러나는 돌석.

궁녀들이 다가와 왕의 머리와 손톱을 손질해준다.

#76. INT. 상의원 - 밤

상의원에 들어서던 돌석. 공진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침선비들과 장인들이 보인다.

F.B>

-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하던 왕.

왕 : 모두 그대가 어침정이라고 하는데 그 말들이 허울뿐인 것 같아 두렵나 물었다.

성난 눈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돌석. 뒷짐을 진 채 주먹을 쥐는 돌석의 손.
물아서 옷자락을 휘날리며 나가버린다.

#77. INT. 무수리 방 - 밤

속옷 차림으로 늘어선 무수리들 앞에서 장을 뒤져대는 상의원 사령들.
발밑에 던져지는 공진이 만들어준 옷을 보며 무수리들 전전긍긍해한다.

#78. EXT. 상의원 마당 - 밤

돌석 : 지금 이후로 또 다시 내눈에 췌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천박한 옷이 발견 될
시에는 어떻게 임히 다스릴 것인가

줄지어선 궁녀와 무수리들 앞에 산처럼 쌓여있는 그녀들의 옷들.
햇불 빛에 엄정한 얼굴로 지켜보는 돌석 앞에 판수가 헐레벌떡 달려온다.

판수 :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어허, 저 야까운 옷들을...

돌석 : 이것은 옷이 아니외다 천하기 이를 데 없는 형견조가리일 뿐이올시다

판수 : 이쁘기만 하던데 굳이 이럴 거까지...

돌석 : 헛들 하느나 이것들을 모두 쓸어 내지 않고

전전긍긍한 눈으로 수레에 옷들을 쓸어 담는 걸 보는 판수.

돌석, 위엄 있는 눈으로 시선을 돌리자 저만치에 서있는 공진이 보인다.

보란 듯 그를 쳐다보는 돌석. 공진, 돌석과 눈이 마주친다.

그러나 분노나 못마땅함 따위도 없이 그저 맘대로 해보란 듯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공진.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무심히 자리를 떠버리는데...

그런 공진의 뒷통수를 노려보는 돌석.

#79. EXT. 췌 밖 소각장 - 밤

궁 밖 소각장에 산처럼 쌓여 있는 공진이 만든 궁의 옷들.
달빛도 어두워 사방이 음산하다. 그 옷더미 앞에 서 있는 돌석.

F.B>

- 상의원 문을 지나치며 버려진 옷들과 돌석을 아무렇지도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공전의 눈. 너무나도 무심한 듯한 것이 오히려 도전적이다.

마치 공전을 앞에 두고 있는 듯... 감정이 격앙된다. 두 주먹을 꼭 쥐는 돌석.
이렇게 해도 진 것 같은 느낌에 숨이 차오른다.

#80. INT. 빈청 - 낮

영의정을 중심으로 모여 앉은 대신들.

좌의정 : 진연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소이까?

예판 : 나라의 큰 잔치인데 내 소를 할 리가 있겠소이까?
그 어느 때보다 규모 있는 진연이 될 것이외다.

예판의 시선을 따라가자 구석에서 열심히 뽕가루를 그리고 있는 도화서 화원.
슬쩍 보자 연회를 위해 대전 앞에 배치할 자리들을 그리고 있다.

형판 : 아우, 그 쪼개 놈들은... 뭐 주먹먹을 거 있다고 또 기어오고 말아야...

우의정 : 어허, 말조심하시게... 아무리 전하께서 용상에 오르셨다 한들 황제의 윤허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 옥새를 가지고 오는 자들이니 잘 모셔야 할 겐세.

구시렁거리며 연회 배치도의 의자들을 보는 형판.

형판 : 하나, 둘, 셋... (세더니) 어찌 자리가 하나 부족한 것 쏘소이다.

병판 : 중전께서 진연에 나오지 않으실 것이외다.

형판 : 그게 무슨 소리요? 여기 이렇게 마마의 자리가 있거늘...

병판 : 거긴 소인의 여식이 앉게 될 것이오.

당당한 병판의 얼굴에 어이없는 형판, 영의정을 보면.

영의정 : 전하께서도 윤허하신 일일세.

#81. INT. 후궁전 - 낮

쏟아지는 햇살 아래 대청에 납작 엎드려있는 돌석.

병판의 뒤로 대나무 발 안쪽에서 보료에 기대앉은 소의가 보인다.

눈앞에 놓이는 비단을 보는 돌석을 도도한 눈으로 내려다보는 소의.

소의 : 알겠는가? 그곳에 모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다워야 할 겐세...

#82. INT. 용비전 침소 - 밤

저녁상을 하나도 손대지 않은 왕비. 속적상 차림에 이부자리에 앉아 있다.
마치 병자와 같은 그녀의 모습에 걱정이 가득한 지밀.

지밀 : 마마... 진정 진연에는 참석치 않으실 작정이십니까....
왕비 : 쉬고 싶구나... 이제 그 애긴..... 그만 하거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눕는 왕비의 뒷모습.
지밀, 왕비의 마음 모를 리 없어 눈물이 고인다.

#83. INT. 공진의 가게 - 밤

복적이는 가게 안에 나란히 앉아있는 공진과 판수.
일꾼들이 둘러든 사대부 여인들을 상대하느라 분주하다.

판수 : 어우, 저게 다 얼마야... 아주 돈을 쓸어 담네. 담아...
에휴... 켈 안이나 밖이나 한양 여인들은 죄다 진연날 옷 맞춘다고 난린데..
정작 나라의 안주인께선 비단 손수건 하나 짓지 못하시니 쯤...

무슨 소리가 하는 공진 옆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원가를 떠들어대는 판수.
공진은 조용히 돌고나는 사람들을 본다. 하지만 얼굴에 생각이 많다.
복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공진.
원가 용단을 내렸는지 벌떡 일어나 가게를 나가 뛰어간다.
갑자기 어딘가로 달려 가버리는 공진을 보며 왜 저러나 싶은 판수.

#84. INT. 왕비전 침소 - 낮

앞은 주렴 뒤로 보이는 왕비 앞에 웅드려 있는 공진.
고개를 들어 왕비를 본다. 많이 아픈 왕비의 모습에 공진의 가슴이 무너진다.

공진 : 소인이 마마께서 진연에 입고 나가실 옷을 만들 게 윤희해 주시옵소서.

공진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딴 곳만 보는 왕비.

공진 : 대체! 어찌하러 싸우려하지 않으시는 것이옵니까!

마음을 담은 왕비에게 간절하게 외치는 공진.

공진 : 병법에 말하길 이기지 못하는 건 다 자기 자신의 탓이라고도 적혀있사옵니대
왕비 : ...
공진 : 진정한 아름다운은 숨어 있어도 드러나게 되어있는 법!
소인, 반드시 모두가 마마 앞에 고개 숙이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소인의 청을 거두라하지 마시옵소서...!

왕비 : 지밀...

공진 : 마마...!

지밀 : 무엄하오 이서 물러나시오!

지밀상궁의 눈짓에 공진을 끌어내는 궁녀들.

공진 : 마마... 마마, 제발! 제발 이것만이라도 보주시옵소서...!!

공진의 외침에 지밀을 보는 왕비. 지밀 눈짓에 궁녀들이 공진을 놓아준다.
공진, 종이 한 장 펴서 보여 준다. 화려한 가채가 그려져 있다.
그림을 본 왕비는 물론 지밀과 궁녀들의 눈까지 커진다.

공진 : 마마를 위해 준비한 것이옵니다.
소인, 마마께 이것에 맞는 옷을 지어 물리고 싶사옵니다...

또아리 형태가 아닌 지금껏 없던 엄청난 높이와 화려한 형태로 만들어진 가채다.
용장, 봉장, 원양장을 비롯해 온갖 금은주옥으로 크고 작은 비녀와 꽃이들이 꽂힌 가채.
몇 개의 자그마한 비단덩이까지 장식되어 그 화려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지밀 : (멍한 얼굴로 왕비에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가채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런지...

공진 : 지금껏 본 적 없는 색과 모양이 될 것이옵니다...
반드시 전하뿐 아니라 그 어떤 사내라도 마마에게서 눈을 뗄 수 없도록...
마마를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설레어하는 왕비. 가채 그림을 본다.
얇은 주렁 너머의 공진과 눈이 마주치는 왕비.
뚝어지게 그녀를 보는 공진. 왕비, 두근거리는 가슴에 손을 얹는다.

왕비 : 지금 치수 짠 아이들이 있는가?

지밀 : 마마...!

걱정스런 얼굴로 말려보려 하는 지밀. 하지만 왕비, 단호해 보이는데.

공진 : 소인이 만들 의대... 지금껏 없던 모양이오라...
정확함을 위해 소인이 직접 치수를 재어야만 하옵니다. 윤택하여 주시옵소서...

왕비 : (생각하더니)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지밀 : (놀라) 마마...!!

노려보는 지밀 앞에서 비단주머니를 펼치는 공진.

가는 비단을 맡아 만든 권척(줄자)을 챙겨 일어나는 공진에게 지밀이 조용히 말을 한다.

지밀 : '절대... 옥체에 손이 닿아선 아니 될 것이오..'
공진 : (아무 말 없더니) ...

지밀을 지나쳐 왕비에게 가는 공진. 지밀, 궁녀들에게 물러나라 눈짓한다.
주렴을 안쪽으로 들어가 등보이고 서있는 왕비의 뒤로 다가서는 공진.
달을 듯 바짝 다가서는 공진의 얼굴. 공진의 숨결이 닿자 왕비 긴장한다.

공진 : 소신... 잠시 옥체에 손을 대겠습니다.

눈에 쌍심지를 켜지만 차마 돌아보지 못하는 지밀.
떨리는 왕비의 얼굴. 왕비 천천히 공진 앞에서 팔을 좌우로 펼친다.
그러자 얇은 주렴 너머로 팔 벌린 왕비를 뒤에서 포옹하듯 하는 공진 뒷모습.
조심스럽게 왕비의 옷고름 잡는 공진. 긴장하여 침 삼키는 왕비의 하얀 목.
옷고름 반쯤 당긴 공진의 손을 왕비의 손이 잡는다. 놀라 다시 손 떼는 왕비.
잠시 멈췄던 공진의 손이 왕비의 옷고름을 마저 당기자 스르르 저고리가 내려간다.
그러자 얇은 속저고리 안으로 드러나는 왕비의 하얀 목덜미와 어깨.
침을 꿀꺽 삼키며 치마말기 푸는 공진의 손. 비단으로 된 왕비의 치마가 발밑으로 떨어진다.
그 소리에 주렴 밖에서 눈을 질끈 감는 지밀.
왕비, 속이 흰히 비치는 속치마와 속저고리 차림이 된다.
뒤에서 느껴지는 공진의 시선에 자신도 모르게 움츠리는 왕비.

공진 : 치수를 짤 때는 몸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망설이다 다시 팔과 다리를 펴는 왕비. 공진, 권척을 풀어 치수 재기 시작한다.
달을 듯 말 듯 왕비의 속저고리 위로 스치는 공진의 손가락과 권척의 비단.
공진의 손이 왕비의 목덜미부터 허리와 엉덩이를 따라 내려간다.
파르르 떠는 왕비의 입술. 배에 힘이 들어가며 아랫입술을 깨운다.
발끝에서 허벅지로... 허리 뒤에서 배꼽으로... 겨드랑이 지나 가슴을 감싼 치마말기까지...
마치 포옹하고 애무하듯 왕비의 몸에 스칠 듯 말 듯 지나가는 공진의 손.
공진, 왕비의 몸을 만지고 싶은 것을 애써 참아낸다.
눈을 살짝 감은 채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왕비...
어깨부터 시작해 왕비의 손등에 와서 멈추는 공진의 손과 권척.
공진의 손을 만지고 싶은 듯 작은 움직임을 보이는 왕비의 손가락...
용기를 낸 왕비. 손등 뒤집어 공진의 손을 잡으려 한다.
공진도 마주 잡고 싶었으나 이내 정신 차리곤 권척을 회수하여 가버리는 공진의 손.
왕비의 손, 아쉽게 허공만 잡고 만다.

약간 움츠린 속치마 차림으로 부끄러운 듯 떨고 서있는 왕비.
공진의 손이 왕비의 어깨에 커다란 비단으로 된 녹색의 원삼을 덮어준다.

S - (주)영화사 비단길

그리고는 한 걸음 위로 물러나 주렴 밖으로 나가는 공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공진의 마지막 발소리 꿈기자 왕비 힘이 풀린 듯 주저앉는다.

지밀 : 마마...!

주렴 안으로 들어와 왕비 부축하는 지밀.
그녀 품에서 벗어난 왕비. 공진이 사라진 어둠 속을 돌아본다.

#85. INT. 상의원 - 밤

모두가 퇴청한 늦은 시간까지 공방에 남아 웃을 만들고 있는 돌석.
목숨 수(壽)자를 수놓은 노란 비단에 화려한 색동 띠로 장식된 소의의 원삼이다.
정성스럽게 원삼에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고 있는 돌석. 대길이가 들어온다.

대길 : 녀석이 오늘도 등청하지 않았사옵니다.

돌석 : (태연한 척) 하늘이 내려준 재주만 믿고 버티기엔 상의원이 답답한 모양인 게지...

잠시 손을 멈추고는 자신이 만들던 원삼을 보는 돌석.

돌석 : 어떠하나?

대길 : 스승님께서 만드신 것을 소인이 감히 어찌...

돌석 : 아름답냐고 물었다.

대길 : (무슨 말인가 하다) 아름답사옵니다...

돌석 : 그래... (웬지 씁쓸한) 나가 보거라..

대길, 인사를 하고 나가자 다시 바늘을 둘러던 돌석.
손을 멈추곤 저만치 주인을 잃은 공진의 빈 책상을 바라본다.

#86. EXT. 시장 - 낮

공진의 가게가 있던 가게자리를 보고 있는 돌석.
쌀가게가 들어서느라 분주한 그곳을 보다 자리를 뜬다.

#87. INT. 상의원 - 밤

돌석, 작업 하던 소의의 원삼을 바라볼 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마음 추스르고 가위를 들어보지만 딱히 뭘 잘라야 할지 몰라 하는 돌석.
결국 안 되겠는지. 들었던 가위 내려놓고 일어선다.

#88. EXT. 취향루 앞 - 밤

청사초롱이 밝혀진 취향루 앞을 서성이던 돌석. 그냥 돌아갈까 하는데...

#89. INT. 취향루 복도 - 밤

지나치는 기녀들의 요염한 눈빛 속에 헛기침을 해대는 돌석.
내실 앞에서 어쩔까하는데 문이 열리며 공진과 마주친다.

#90. INT. 취향루 내실 - 밤

공진과 마주 앉아 있는 돌석. 공진, 좀 놀랐는지 눈만 깜박인다.

돌석 : 요새 등정도 안 하고 예서 뭐하는 겐가?
공진 : 그냥 뭐... 여기가 원채 편해서요

공진, 작은 책상 위에 종이를 놓고 붓으로 원가를 그린 그림 보인다.
힐끗 보게 되는 돌석, 공진이 가리려하자 뺏어본다.

돌석 : (눈 커져선) 이게 원가?
공진 : 아, 주세요... 그냥 그려 본 거예요...

그러다 문득 공진 뒤편을 보는 돌석. 문이 조금 열려있는 작은 협실이 보인다.
공진을 뿌리치며 협실 문을 여는 돌석. 빨려 들어오듯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자 놀란 눈으로 그 자그마한 협실 안을 둘러보는 돌석.
협실 한쪽에 가득 쌓여있는 온갖 색깔의 고급스러운 비단들...
벽에는 온통 울긋불긋하게 채색까지 된 여인네의 웃을 그린 그림들이 붙어있다.

돌석 : 이게 다 자네가 그린 거란 말인가... 누구 입힐려고?
공진 : (잡아끌며) 아, 나오시라니까...!

공진을 밀치고는 벽에 붙어있는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돌석.
중이마다 처음 보는 형태의 여인네를 치마저고리와 원삼이 그려져 있다.
한눈에도 기녀나 사가의 여인네가 아닌 왕실 여인을 위한 옷들이다.
그걸 보곤 원가 깨달은 듯 공진을 돌아보는 돌석.

돌석 : 자네 혹시... 설마... 아니지? 어서 아니라고 말하게내
공진 : (시선 피하면) ...
돌석 : 세상은 가질 수 없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거란 걸... 진정 모르겠는가?
공진 : 난 그런 거 모릅니다.
돌석 : 그럼 마마는? 자네로 인해 마마께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생각해보았는가?
공진 : 더 이상 얼마나 위험해 진단니까... 이미 진연장엔 중전마마의 자리조차 없거늘...
소의인가 원가 하는 여자가 마마의 자리에 앉을 거라 함디대

말해보세요? 이보다 위험한가요? 소인이 마마를 위해서 만드는 이 옷들이?
돌석 : 난 못 보고 못 들은 걸로 하겠네. 자넨... 상의원으로 돌아 올 필요 없어.

가려다 발밑에 흩어져 있는 옷 그림을 보는 돌석. 발로 탁- 차곤 나가버리면.
다시 앉아 그림 그리려다 구겨버리더니 술병을 들고 벌떡거리는 공진.
돌석, 문 앞 복도에 서있다 문득 손에 쥐고 있던 옷 그림을 발견한다.
버리려다 멈칫하는 돌석의 손. 돌석의 눈빛 흔들린다.

#91. INT. 상의원 - 밤

아무도 없는 상의원에 들어와 공진의 자리를 찾는 돌석.
이것저것 어지럽혀진 공진의 책상을 뒤지기 시작한다.
그때 돌석의 눈에 들어오는 책상 아래 떨어져있던 구겨진 종이 하나.
그것을 펼쳐보더니 굴어버리는 돌석. 마치 빨려 들어가듯 눈이 커진다.

#92. EXT. 취향루 마당 - 밤

초초한 얼굴로 서있는 돌석. 흥옥 주위 눈치 살피며 다가온다.

돌석 : 내 뭐 하나만 물자. 혹시 공진이 그놈이 머리카락을 사 모으진 않았느냐?
흥옥 : (가웃거리면) 머리카락이요...?
돌석 : 잘 생각해 보아라...
흥옥 : 그러고 보니... 전보다 방물장수 할매가 자주 드나들긴 했습니다만...
돌석 : ...!

#93. INT. 취향루 내실 - 밤

협실 안에 앉아 독특한 형태와 높이의 가체들을 만들고 있는 공진의 뒷모습.

#94. INT. 도가, 돌석의 방 - 밤

이불 속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던 돌석. 벌떡 일어난다.
다급히 벗어놓은 옷을 뒤져 구겨진 종이들 찾아 바닥에 펼쳐보는 돌석.
자신이 베껴온 공진의 옷 그림 위에 상의원에서 주워온 그림을 올려본다.
그걸 보곤 툭췌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얼굴로 힘없는 웃음 터트리는 돌석.

돌석 : 허허허... 허허허허... 허허허허허... 으하하하하하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이었어... 그랬어... 허허허허허...

공임없이 허탈한 웃음소리만 내는 돌석. 화면, 그의 앞에 놓인 종이를 비추면.
어딘가 허전해 보이던 옷 그림 위에 놓여있는 특이한 모양의 가체를 그린 그림.

두 그림이 상하로 합쳐지자 완성된 형태의 그림이 된다.

(대길) : 대길입니다... 여직 가침해 계시은지요?

그때 문밖에서 들리는 대길의 목소리. 문이 열리며 대길이 들어온다.
고민에 잠긴 돌석에게 다가와 보는 대길. 돌석, 공진의 옷 그림을 보고 있었다.
구겨진 종이 속에 있는 화려한 옷 그림을 보고 눈이 점점 커지는 대길.

대길 : 이거.... 대체... 정말... 어떻게 이런 걸... 역시 스승님이옵니대

대길의 칭찬에 당황스러워하는 돌석. 자존심이 상하지만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다.

대길 : 어찌 이런 생각을 하셨사옵니까... 소인 감복했습니다... 소인 같은 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해낼 수 없을 듯하옵니대... 참으로.. 참으로 아름답사옵니대...

질투와 복잡함이 지나가는 돌석의 눈빛.

돌석 : 그러한가... 그토록 아름다운가...?

대길 : 그렇사옵니대. 어르신 (감탄의 눈으로 그림 보며) 마치.. 꿈결 같습니다...

차마 공진의 그림이라 말하지 못하는 돌석.
감탄하는 대길을 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진다.

#95. INT. 취향루 내실 안 협실 - 밤

돌석이 가져간 그림 그대로 의대를 위에 만들어진 화려한 형태의 옷과 가제.
공진, 가제만 올려놓은 다른 의대들에도 색색의 비단 걸쳐가며 색을 고르고 있다.
마른 입술에 상투마저 흐트러진 채 옷에만 집중하는 공진.
하지만 영 마음에 드는 색이 없는지 가지고 있던 비단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한다.
뒤에서 지켜보던 월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온다.

월향 : 잠시 식사라도 하시지요... 벌써 아를 꽤 그러고 계십니다.

공진 : (계속 비단만 고르며) ...

다가와 공진에게서 비단 뺏는 월향. 공진 노려본다.

공진 : 지금 뭐하는 게냐...?

월향 : 이제 그만 하시옵소서.

공진 : 내놔라... (월향 미동 없자) 내놓으라고 (뺏으려 하면)

월향 : (웃더니) 설마... 진심이라도 되신 겐니까?

대답 대신 멍한 눈으로 자신이 만들던 옷만 보는 공진. 월향, 어이가 없는지 웃더니.

월향 : 소녀, 비록 천한 기녀이지만 더는 이런 꼴을 볼 수 없습니다... 계속 제 집에서 다른 여인을 생각하실 거라면 당장 나가주시옵소서... 나가란 말입니다!

비단 내던지더니 벽에 붙여둔 그림들 뜯어내는 월향.
의대틀에 걸린 옷들까지 벗겨 밖으로 던져버린다.
공진, 월향의 손목을 잡는다. 당당한 눈으로 한참 본다. 속상한 월향의 얼굴.
공진, 그 손 놓아주고, 스스로 그림들과 옷들을 챙겨 든다.
보자기에 모아 넣고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선다. 잡고 싶지만 잡지 못하는 월향.
공진이 떠난 텅 빈 방 안에서 탈썩 주저앉는다.

#96. INT. 상의원 - 밤

자신의 공방으로 들어와 의대틀에 걸려있는 노란 원삼을 보는 돌석.
마음을 진정시키며 원삼을 걷어 내 잔 바느질을 시작한다.
바느질 할 부분의 선만 자꾸 속속 매만질 뿐 바늘 한 땀을 끝지 못하는 돌석.
눈만 수번 씩 깜박인다. 안되겠는지, 원삼을 다시 의대에 걸쳐 둔다.
그리고는 치마를 만들겠다고 비단을 쪽 편다. 줄자로 길이를 속속 재는데
비단과 줄자가 자꾸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고 반듯하게 되지도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손에 익지 않아 점점 미간에 짜증과 초조와 고이더니 집어치워 버린다.
자신이 어쩌서 이러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운 돌석.
그의 시선에 텅 빈 공진의 책상이 들어온다. 그래... 다 저놈 때문이었던 것이다.
무력감에 탈썩 의자에 앉아 힘없는 웃음만을 흘리는 돌석.

#97. EXT. 궁궐 앞 - 밤

힘없는 발걸음으로 터덜터덜 대궐 문 밖으로 나서던 돌석.
담장 어둠 속에 앉아있는 웬 사내를 그림자를 본다.
혹시 괴한인가 싶어 주춤거리는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사내.
보따리를 든 공진이었다. 그를 보고 의아해하는 돌석.

공진 : 어르신...

돌석 : 자네 여기서 뭐하는 겐가?

공진 : 쫓겨나서요... 아, 그 기지배... 밀린 술값 치르라고 어쩌나 난리던지...

머쓱해하는 공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돌석. 보따리 속에 든 화려한 비단 옷자락을 발견한다.
고개 돌려보지만 시선을 떼지 못하며 차츰 계략으로 가득한 비릿한 눈빛으로 변하는 돌석.

돌석 : 자네... 꼭 만들어야겠는가?

공진 : (말이 없으면) ...

공진 : 감사합니다. 어르신..
돌석 : 어찌겠나. 자네 마음이 정히 그렇다면..
(떠보듯) 근데 어떤 옷을 만들려는 건가?
공진 : 아, 그게요... 일단은 이런 형태인데요..
피처럼 아주 붉은 진홍색 비단에 이런 문양을 붙이고..

신이 나선 계속 종이에 뭔가 그려대는 공진.
돌석, 공진보다 더 흥분된 눈으로 공진의 그림을 본다.

#99. INT. 육의전 빈 행랑-도가 공방 (교차) - 밤

- 빈 행랑

은은하게 꽃무늬가 새겨져있는 하얀 비단을 보는 공진과 돌석.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에 염색물을 붓곤 하얀 비단을 넣는다.
염색물이 든 비단을 꺼내선 함께 짜악 짜주는 공진과 돌석.
피처럼 붉은 물이 든 비단과 하늘같은 푸른색 쪽빛 비단을 긴 장대에 널어 말린다.
돌석의 눈이 자신이 원하는 색인 듯 기쁜 얼굴을 하는 공진을 훑쳐본다.

- 도가 공방

방 안 가득 온갖 색깔의 비단들을 펼쳐놓곤 색을 고르는 돌석.
그중 가장 진한 붉은색의 비단을 찾아내 살펴보는데...

- 빈 행랑

종이에 그려진 기하학적인 형태의 여러 가지 꽃과 동물 문양들.
돌석의 손, 긴 나무줄에 문양을 베껴 조각한다. 공진의 확인을 받는 돌석.
그의 뒤로 공진이 만들고 있는 왕비의 옷이 보인다.

- 도가 공방

돌석 앞에 걸린 옷. 어느새 공진이 만드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져있다.
하지만 화려한 옷에 비해 의대롱의 머리 부분이 허전한데...

- 빈 행랑

책상에 쏟아지는 금가락지와 금비녀들. 놀라는 돌석 보며 공진 웃는다.

- 도가 공방

구겨진 그림 보며 가채를 만드는 돌석. 얼추 공진과 비슷하게 되자 다른 장식을 추가해본다.

- 빈 행랑

금가락지 녹여 얇게 금박지를 만드는 돌석. 문양틀에 아교 빨라 옷감에 찍는다.
그리곤 금박지 붙여 툭툭 두드려주는 돌석의 손끝.
문양 바깥쪽만 떼어내자 금박과 은박으로 이루어진 국화문양이 완성된다.

옆에서 지켜보다 기뻐하는 공진. 돌석, 공진이 만들던 붉은 원상을 바라본다.

- 도가 공방

작업 끝내는 돌석. 그의 붉은 원상에는 커다란 꽃과 봉황 무늬의 금박이 찍혀있는데.

- 빈 행랑

완성된 처마저고리와 붉은 원상을 보는 공진과 돌석.

소매와 옷깃, 옷고름에 붙인 금박과 은박 장식이 아름답다.

-빈 행랑

돌석이 가고 혼자 남은 공진. 완성 된 옷을 보며 뭔가 묘자란듯 고민한다.

그러다 원가를 생각해내는 공진의 눈빛... 비단을 찾아내 꼭 펼쳐면!

#100. INT. 후궁전 별채 - 밤

소의 앞에 붉은 원상을 넓게 펼쳐놓은 돌석.

공진의 것과 비슷하지만 금박으로 찍은 문양이 좀 더 크고 화려하다.

좋아하는 소의 앞에 놓고 화려한 가채도 내놓는 돌석.

소의, 본적 없는 형태의 가채에 눈 커지며 기뻐한다.

#101. EXT. 궐 문 앞 - 밤

초헌(의자 밑에 바퀴가 달린 가마)을 타고 와 궐 문 앞에 내리는 영의정.

뒤이어 도착한 사인교 가마의 윤이 열리며 정경부인도 내린다.

#102. EXT. 인정전 앞 - 밤

풍악소리 속에 춤을 펼치는 무희들. 월대 위에는 왕과 사신대표가 앉아있다.

월대 한쪽에서 수수한 원상차림으로 앉아있는 후궁들.

그 밑에서 대신들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청나라 사신들.

시종드는 무수리들의 저고리 사이로 젓가슴 훑쳐보느라 정신없다.

그때 딱-딱- 하는 딱따기소리에 이어 들리는 별감의 목소리.

별감 : 소의마마, 남시오-

음악소리가 바뀌자 사신대표와 함께 고개 돌려보는 왕.

크고 화려한 가채에 금박으로 장식된 붉은 원상을 입은 소의가 나타난다.

일제히 감탄하며 소의를 쳐다보는 청나라 사신들. 왕 흐뭇해하는데...

두루마리를 쓱 보더니 병졸들에게 인정문을 달으라고 손짓하는 별감.

문이 거의 다 닫혀갈 때쯤 누군가를 보곤 놀라서 두루마리를 다시 보며 허둥거린다.

그러다 급한 마음에 딱따기부터 딱-딱- 치더니 더듬거리며 외치는 별감.

별감 : 주... 종전마마, 남시오-!!!

별감의 목소리에 웅성거리며 돌아보는 대신들과 그들의 부인들.
왕과 소의도 마주보며 환히 웃다말고 고개를 돌려본다.
그러자 찌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다시 열리는 커다란 인정문.
멀리 문밖 환한 불빛 속에서 왕비가 궁녀들을 이끌고 나타나 천천히 걸어 들어오기 시작한다.
연회장 밖에 앉아 붓질을 시작하는 도화서 화원. 그의 붓끝을 따라 왕비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음악 속에 소의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와 색상의 원상을 입고 왕을 향해가는 왕비.
그녀의 좌우로 궁녀들이 구름이 그려진 긴 차양이 달리 장대를 잡고 함께 걸어간다.
무대 위의 왕비를 보고는 눈 커지는 돌석. 왕비의 옷, 자신이 보았던 그것이 아니었다.
치마의 길이를 과감하게 길게 늘였으며, 뒤편 쪽으로 주름을 풍성하게 잡아 크고 우아하게
늘어뜨린 드레스 풍의 치마! 그것만으로도 좌중의 시선을 주목 시킨다.

더 크고 화려하게 말아 올리기까지 해서 만든 가채까지... 어느 것 하나 눈을 땔 수가 없는 왕비.
걸어 들어가는 왕비의 얼굴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자존감이 넘친다.
우아하고 품위가 넘치며 은근한 도도함이 묻어나는 왕비의 달리진 환한 얼굴.
한편, 궁녀들이 잡아줘야 할 만큼 길게 뒤로 늘어진 치맛자락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돌석.
자신이 베껴 만든 소의의 옷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왕비의 옷에 넋이 나가버린다.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진연장의 풍경을 그려내는 화원들의 붓끝.
그 자태를 놓칠 새라 풍성하고 아름다운 왕비의 옷을 훑린 듯 그려나간다.
프롤로그에 나온 외규장각 문서 속의 그림을 그리는 화원들의 손길...

감히 수군대지도 못하고 왕비의 우아한 자태만을 바라보다 절로 고개 숙이고 마는 청나라 사신들.
사대부 부인들조차 무대 위를 걸어가는 왕비의 발걸음 뒤로 그녀를 향해 허리 숙인다.
자신들도 모르게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는 왕비를 향해 깊게 인사를 올리는 후궁들.
소의만이 자기를 지나쳐 왕의 곁으로 가는 왕비를 보며 손톱만 깨문다.
처음 보는 왕비의 화려한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 왕...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일어나 왕비를 맞이하기 위해 월대를 내려간다.
자신을 바라보며 한걸음씩 걸어오는 왕을 나직이 보며 걸어가는 왕비.
왕, 왕비 앞에 서서 손을 내민다.

왕 : 오늘 종전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답구려.

왕비 : (미소 지어주면) ...

왕비를 인도하며 나란히 자리로 돌아가는 왕.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그림과도 같다.
왕비의 등장으로 자신의 자리가 사라지자 뻔뻔히 있다 나가버리는 소의.
사신대표와 인사를 하곤 자리에 앉은 왕비, 멀리 누군가를 찾는다.

[illegible]

Figure 1. The effect of the concentration of the H_2O_2 solution on the amount of the released H_2O_2 from the H_2O_2 -loaded hydrogel. The amount of the released H_2O_2 was measured by the amount of the released H_2O_2 from the H_2O_2 -loaded hydrogel. The amount of the released H_2O_2 was measured by the amount of the released H_2O_2 from the H_2O_2 -loaded hydrogel.

1000



Figure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experimental design.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The control group was divided into two subgroups: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as divided into two subgroups: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The control group was divided into two subgroups: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as divided into two subgroups: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소의 : 뭐라?

천천히 고개 들어 소의를 똑바로 쳐다보는 돌석.

돌석 : 가방에서 놀리던 천한 손재주로 기녀들 옷이나 전배없는 그런 걸 만든 자와 그 천한 태를 곱다고 걸치신 중전마마의 꼭두각시놀이가 그리도 부러우시나 말아옵니다.

소의 : (잘못 들었나 싶어) 뭐? 방금... 기녀라고 했느냐?

대답 대신 깊이 다시 허리 숙이는 돌석. 소의의 눈이 점점 커진다.
고개 숙인 돌석의 눈이 이기적으로 빛난다. 이미 이성을 버린 눈이다.

#106. EXT. 후원 정원 - 낮

높고 화려한 가채를 엮은 왕비. 후궁들과 산책하고 있다.
마주 오는 소의를 발견하는 왕비. 소의, 전과 달리 공손하게 인사를 올린다.
자신 앞을 지나쳐가는 왕비를 경멸의 미소로 바라보는 소의.
그것을 모르는 왕비, 밝은 얼굴을 하고는 계속 걸어간다.

#107. EXT. 후궁전 앞 - 밤

왕의 발끝을 비추는 불빛. 대전내관 등롱을 들고 왕의 곁에서 걷는다.

대전 : 소의마마의 침소로 향하옵지...?

멈추는 왕의 발. 뒤따르던 내관들과 상궁들 따라 멈춘다.

왕 : (생각하더니) ...오랜만에 내전에 둘러봐야겠다.

잠시 술렁이는 내관들과 상궁들.

대전 : 중전마마께 말씀이옵니까?

왕 : (대답 없으면) ...

분위기를 보더니 방향을 돌려 인도하는 대전내관의 등롱.
걸음 돌리는 왕의 뒤로 내관과 상궁들의 긴 행렬이 따라 움직인다.

#108. INT. 왕비전 밖 - 밤

놀란 얼굴로 입을 열려는 지밀에게 쉬잇- 하는 왕.
당황해 인사 올리는 상궁과 궁녀들 향해 왕이 미소 짓는다.
숙인 채 안절부절 못하는 상궁과 궁녀들 사이로 걸어가는 왕.

조용히 발소리 죽여 걸어가던 왕의 발걸음이 멈춘다.

침소로 들어가려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보더니 멈칫하는 왕.

촛불 몇 개만 밝혀진 캄캄한 침소 안에 앉아 있는 왕비.

주렴도 걸은 채 공진과 가까이 마주 앉아 안타깝고 그리운 눈빛으로 공진을 바라보는 왕비.

떨리는 왕의 주먹. 굳은 얼굴로 돌아서는 왕의 무서운 눈빛.

흑룡포 휘날리며 걸어 나가는 왕의 뒷모습.

대전내관, 호위내관들과 함께 지밀의 좌우를 막아선다.

#109. INT. 왕비전 - 밤

공진, 담당한 얼굴로 왕비를 본다. 왕비도 고마운 미소로 공진을 본다.

왕비 :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공진 : 소인... 이제 떠날까 하옵니다...

공진의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하는 왕비.

공진 : 떠나기 전에 꼭 한 번... 마마님의 얼굴을 뽀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왕비 : 떠... 떠나다니요. 대체 왜... 나를 놔두고 도대체 어딜 간단 말입니까?

공진 : 이놈의 바느질을 기다리는 자들이 하도 성화라... 이젠 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왕비, 가지 말라고 잡고 싶은 눈빛. 하지만 말로 옮기지 못한다.

공진 : 그리고 이것....

공진, 왕비가 내린 봉장을 꺼내 탁자에 올려두고 물러난다.

공진 : 소인이 지니고 있기에 과한 것입니다. 소인을 아껴주신 그 마음만을 받겠습니다.

그 은혜... 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고개 숙인다. 눈물이 잠시 머물고 지난다)

왕비, 봉장을 바라본다. 눈물이 고이려는 것 참는다. 공진을 본다. 서글픈 미소.

왕비 : 저 또한. (아름답고 슬픈 미소) 마음만 받겠습니다.

서로, 애잔한 마음만 전하는 두 사람.

왕비 : (깊은 마음을 모아) 고맙습니다. 다.. 모두다 말입니다.

공진, 아무런 말 못하고 그저 미소만 지어 보인다.

#110. EXT. 궁궐 일각 - 밤

등불을 앞세워 천천히 걷는 왕. 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 중이다.
뭔가 석연치 않은 왕의 눈. 걸음을 멈춘다.

왕 : 이 넓은 궁궐에서 갈 길 몰라 서성인다는 게 참... 거지같지 않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대전내관. 왕, 어디론가 걸음을 돌린다.

#111. INT. 후궁전 침소 - 밤

왕 : 사람이 왔는데 어찌 얼굴도 비치지 않는 게냐..
(소의) : 소녀... 전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몇 개의 초만 밝혀진 침소. 얇은 주렴 걸리며 소의가 나타난다.
그러자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멈칫하는 왕.
소의, 묘하게 가슴골을 강조하며 속살이 보일 듯 말 듯한 속치마만 입고 있다.

소의 : 어침장에게 부탁해 만들라 한 것이운데... 마음에 드시는지요?
왕 : (마음이 흔들리는 듯 웃으면)
소의 : 전하... 아무래도... 켈 안 단속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소녀... 최근 이상한 소문을 들었사운데...

소의의 말에 아직은 귀가 열리지 않는 왕. 소의 교태스러운 눈빛으로 전한다.

소의 : 얼마 전 전하께서 사냥을 나가셨을 때... 젊은 침선장 하나가 중전마마와 함께 궁궐
밖으로 나갔다 하옵니다... 이름이 아마... 이공진 이라고 하던가..
왕 : (이제야 살짝 눈빛 변하면) ...
소의 : 게다가 얼마 전엔... 중전마마께서 궁녀들을 물리시고는,
그자에게 직접... 치수를 재게 하였다는 소문까지 돌립니다.

왕, 소의의 말에 격분한다. 그 격분을 어긋난 탐심으로 표현하는 왕.
이렇다 말없이 소의를 안아 놓으며 달려든다. 당황하며 자리를 뜨는 상궁들.
소의에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왕... 차갑고 교활한 소의의 눈. 왕을 꼭 안는다.

#112. INT. 회정당 - 낮

조용히 앉아 어딘가를 응시하는 매서운 왕의 눈빛.
의대물에 자신의 흑룡포가 걸려있는 것이 보인다.

왕 : 흐흐흐흐... 고작... 저깟 옷 때문이었던 말이지나...

붉게 물든 왕의 눈동자. 걸려있던 칼집에서 칼을 뽑는 왕의 손.
자신의 흑룡포를 향해 가 칼날을 치켜든다.

왕 : 으아아아아니! 아아아아아니! 으아아아니!

미친 듯 휘둘러대는 왕의 칼에 찢기고 조각나는 흑룡포.
이미 걸레짝이 되어버린 흑룡포를 향해 칼질 멈추지 않는 왕.
칼날이 의대를 때리며 부러져 나간다. 그제야 칼질을 멈추는 왕.
부러진 칼날이 천천히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왕의 뒤편에 떨어져 꽃힌다.
잠시 거칠어진 숨을 내쉬다 손잡이만 남은 칼을 버리는 왕.
천천히 웅상으로 가서는 지진 몸을 앉힌다.

#113. INT. 주합루 누각 - 낮

주합루 2층 누각 위에 서있는 왕. 돌석이 왕의 웅복을 가봉하고 있다.

왕 : 어째.. 살이 좀 오른 것 같나?
돌석 : 되려 좀 아위신 것 같습니다. 전하...
왕 : 그런가...

갑자기 왕이 움직이자 놀라선 재빨리 가봉하던 바늘을 빼는 돌석.
놀란 그의 앞에서 왕이 난간으로 가 부웅지를 내려다본다.

왕 : 너는 내가 중전과 합방하지 않는... 그 진짜 이유를 아느냐?
돌석 : (대답 못하면) ...

INS> 유모(지금의 지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어린왕비. 웅장한 궁 안을 구경하느라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두리번거리다 지나가던 작은 왕자와 눈이 마주친다. 멍하니 어린 왕비를 바라보는 작은
왕자. 멀어져가는 어린 왕비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왕 : 쿨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쿨 안에서 단 한 가지도 내 것인 적이 없었다...
이름 없는 풀 한 포기조차 아바마마와 형님의 것이었을 뿐...
나의 것은 하나도 없었어... 심지어 중전조차도 말이다...!

INS> 간택을 위해 모인 처녀들. 늙은 부왕 앞에서 15살이 된 큰 왕자가 처녀 둘을 고른다.
그중 어린 왕비에게 시선을 뺏긴 12세의 작은 왕자를 보는 형.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 왕비 선택하자 눈빛 흔들리는 작은 왕자. 큰 왕자가 보며 웃는다.

INS> 삼간택에서 처녀 하나를 고르는 큰 왕자. 어린 왕비와 다른 처녀 하나 남는다.

큰왕자 : 아바마마, 간택 받지 못한 처자들이 궁녀가 된다는 건 너무 슬프습니다.
(작은 왕자 보며) 마침 이 아이도 가례를 올릴 나이인데...
아바마마께서 남은 처녀들 중 하나를 내리시는 것은 어떨까 하옵니다.

흐뭇해하는 부왕. 놀란 작은 왕자를 보며 웃는 큰 왕자. 작은 왕자, 어린 왕비를 바라본다.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못하는 작은 왕자. 수치심에 못자락만 움켜쥐다.

누각 위에 놓인 용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 왕.

왕 : 내게 증전은 어린 시절 형님이 남겨주신 고기 한 점과 같았던 것이지...
단지 이번에는 거절할 수가 없었을 뿐...
돌석 : 허나 결국 바라던 걸 가지신 것 아니옵니까...

놀라선 쳐다보는 대전내관 눈빛에 고개 숙이는 돌석.

왕 : 가지고 싶었던들... 형님이 버린 걸 주워야 했던 나의 심정...
그 비참함... 그 모멸감을... (억누르며) 네가 아느냐...?

용상을 노려보는 왕.

왕 : 이제야 모든 게 내 것이 되었다 싶었는데...
근데 그놈이... 그깟 천한 놈 따위가... 감히 내 것을 탐해?
내 것이야...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궐 안에 있는 건- 전부 내 것이라고-

누각 안에서 후원 숲까지 메아리치는 왕의 노한 고향소리.
깊게 허리 숙이는 돌석과 대전내관. 거칠어진 숨을 가라앉힌다.

왕 :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 아닌가... 그깟 옷 하나 때문에 증전이란 여자가...
근데 말이다... 내가 증전의 마음이 헤아려 진다는 것이다.

긴장하여 침만 꿀꺽 삼키는 돌석. 왕이 다가와 돌석의 눈을 바라본다.

왕 : 나도 그 옷이 자꾸 입어보고 싶어지는구나...

돌석, 심장이 덜컥.... 고이 놓인 두 손이 파르르 떨린다. 심하게 흔들리는 눈빛 감출 수 없다.
왕, 일어나 모든 걸 뒤로 하고 자리를 비운다. 남은 돌석, 숨이 가쁘다...

#114. EXT. 주합루 앞 - 낮

넋 나간 얼굴로 터덜터덜 내려오던 돌석을 기다리던 대전내관.

돌석 : ...?
대전 : 전하께서 요즘 들어 부쩍 그 자의 옷이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구려...
돌석 : (무너진 자존심에 광기만 남은 눈)...
대전 : 현대 요즘 그자가 중전마마 때문에 바쁘지 않소이까... (슬쩍 보더니)
그래서 우리 어침장께서 대신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마치 그자가 만든 것처럼 말이오... 누가 봐도 아주 똑같이 말이외다.
돌석 : ...기

편히 자신을 보는 대전내관 보며 흔들리는 돌석의 눈빛.

대전 : 겨울만 지나면 큰 갓을 쓰게 된다 들었소이다... (원 말 하려다)
하긴 뭐 귀 생활 그 정도 했으면 잘 아시겠지...

먼 산을 보며 가버리는 대전내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돌석.
비정한 결심을 내린 듯 점점 빨라지는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한다.

#115. INT. 상의원 - 밤

아무도 없는 상의원. 돌석, 자신이 만들던 용복을 본다.
붉은색의 넓은 소매에 양 어깨에는 다섯 발톱의 용이 수놓아진 왕의 용복.
벌떡 일어나는 돌석, 용복을 의대롱에서 벗겨 거칠게 바느질을 뜯어낸다.

해체된 용복을 펼쳐놓고 잠시 보더니 바늘을 들고 다시 꿰매기 시작하는 돌석.
바느질하는 돌석의 거친 손끝을 따라 박반음질로 바느질이 이어진다.
어느 정도 가봉이 된 용복을 의대롱에 걸어놓는 돌석.
그러자 공진이 일루전으로 떠올라 통으로 된 넓은 소매를 잡고, 허리에 주름도 잡는다.

공진의 일루전을 따라 용복의 소매를 고치고 허리에 주름 잡아 날씬하게 만드는 돌석.
돌석과 공진의 일루전, 마치 함께 작업하듯 보이는데...
돌석의 얼굴에 떠오르는 묘한 희열... 그렇게 점점 다시 완성되어 가는 새 용복.
본래의 투박한 형태가 아닌 마치 공진이 만든 듯 세련된 형태와 색이 되어간다.

#116. (몽타주) 첫 눈 - 낮

(1) 왕비전.
- 왕비, 공진이 두고 간 봉장을 바라본다. 고운 손 내밀어 봉장을 집어 든다.
애잔한 눈으로 봉장을 본다. 그리고 창밖을 보는데 하얀 눈이 내린다.
봉장을 든 채로 창가로 가, 창문을 크게 연다.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왕비.

(2) 육의전 빈 행랑.

- 공진이 뭔가 만들고 있다. 고운 파란 빛의 비단으로 뭔가 만드는데, 입가에 미소가 있다.
문득, 창문을 바라본다. 눈이 내린다...
- 만들던 것 잠시 내려놓고 행랑 밖으로 나가는 공진.
- 행랑 밖 마당. 공진, 하늘을 우러러 보며 내리는 눈을 바라본다. 행복한 얼굴이다.

(3) 시장

-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일을 하다말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상인들과 손님들.
- 구석에 앉아 구걸하던 거리골의 아이들의 머리 위로 하얀 눈이 떨어진다.

(4) 인정전 앞

- 내관과 궁녀들을 이끌고 인정전 앞을 거닐던 왕. 눈이 떨어진다.
- 그러자 황급히 일산을 펼쳐드는 내관들. 왕, 됐다고 손짓하면...
- 잠시 멈춰 서서는 서서히 내려오는 눈을 바라보는 왕.
- 항상 땅을 보고 있던 대전내관과 궁녀들도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5) 취향루, 정자

- 풍악 속에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던 대신들 곁에 앉아있던 월향.
- 쓸쓸한 표정으로 눈 내리는 하늘을 보다 대신들의 부름에 웃음 짓는다.

(6) 상의원

- 공방 안에서 응복을 고치던 돌석의 귀에 들리는 "눈이다"하는 목소리.
- 장인들과 침선비들이 문 앞에 몰려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 바느질을 멈추더니 작은 창으로 하늘을 보는 돌석. 내리는 흰 눈을 바라보는데...

(7) 후원

- 꽃들 위로 떨어지는 하얀 눈, 후원 정원에 소복이 쌓여간다.

#117. EXT. 시장 - 밤

줄지어 움직이는 횡불들. 불빛에 일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
지저분한 시장바닥을 달려가는 다급한 발걸음들.
비켜선 사람들 앞으로 군사들이 좁은 시장통을 달려가고 있다.
문 닫힌 어느 가게 앞에서 벽에 몸을 기대 채 명령을 기다리는 군사들.
병사들이 든 횡불들 사이로 날카로운 눈매의 의금부장이 나타난다.

#118. INT. 육의전 빈 행랑 - 밤

금박이 박힌 고운 비단 옷에 바느질을 마무리하는 공진의 손.
의대들에 걸어둔 완성된 옷 앞에 서는 공진 뒷모습 보이면...
기쁜 얼굴로 옷을 바라보는 공진. 갑자기 문짝 부수며 의정부 군사들 들어온다.

방망이와 오라를 들고 공진을 포위하는 군사들.

공진 : 뭐... 뭐야, 당신들...? 뭐냐고

의금부장 : 어명이다! 죄인 이공진은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공진 : ...!

#119. INT. 상의원 - 밤

검역은 장인들과 침선비들 앞에서 상의원을 뒤지는 의금부의 군사들.

#120. INT. 의금부 옥사 - 밤

옥사 천장에서 늘어선 줄. 피떡이 되어 매달려있는 공진. 물벼락을 맞는다.

정신 차리는 공진. 피범벅이 되어 묶여있는 판수와 지밀, 제조영감을 발견한다.

유월이와 함께 공진 앞에 끌려와 쓰러지는 궁녀와 침선비들. 고신 당한 듯하다.

유월이 : 마... 맞습니다... 이자가 소녀를 유혹하며 부락하였습니다...

의금부장 : 이년 말이 사실이냐? 은밀히 바늘을 꿰들려 달라 한 것이.

공진 : 그게 무슨 술이요... 바늘이라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요...?

의금부장 : 이놈... 진정 네놈의 죄를 몰라 묻는 게냐?

다가와 매달린 공진 눈앞에 앉는 의금부장.

의금부장 : 주상전하를 시해하려한... 대역죄이니라.

공진 : ...!!

의금부장 : (일어나며) 저년들을 다시 끌고 가거라.

유월이 : (끌려가며) 살려주세요...! 그리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오리... 나오리아-!!

공진 : 지금 뭐라 했소... 대역죄라니... 언제 내가 임금을 죽으려 했던 말이오 이보시오-!

물러나는 의금부장. 군사들 다가와 공진에게 몽둥이질 날린다.

#121. INT. 상의원 의대실 - 밤

길게 걸려있는 색색의 비단들과 옷들 사이를 헤치고 걸어가는 왕비의 시선.

흔들리는 옷자락들 사이로 언뜻 누군가 서있는 것이 보인다. 왕이다.

의대실 안에 가득 걸린 면복과 용포들을 바라보고 있는 왕.

인기척을 느끼곤 돌아서서 자신 앞에 나타난 왕비를 바라본다.

왕비 : 전하... (말하려는데)

왕 : (가식적인 미소로) 오셨구려... 가져오너라...

그러자 의대틀에 걸린 왕비의 옷들을 가져다놓는 호위내관들.
공진이 만들고 있던 것들이다.

왕 : 보시오, 저자가 중전을 위해 만든 것이라는구려... 참으로 아꼈답지 않소?

피칠 갑을 한 공진, 호위내관들에 끌려 왕비 앞에 던져진다.

왕비 : (다가가려다 멈칫하더니) 무슨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사오나...
일체 사실이 아니옵니다... 믿어주시옵소서...

왕 : (따뜻하게 웃으며) 대관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려...
과인이 이자를 잡아들인 건 대역죄를 범했기 때문이오.
중전이 어여뵈 여기는 자라하여 내 믿고 옷을 만들라 율리라 하였는데...
아, 글썄... 그 속에서 독이 묻은 바늘이 나오지 않았겠소?

왕비 : ...!!

다가와 왕비에게 응복을 보여주는 대전내관. 누런 액체가 묻은 바늘이 보인다.

영의정 : 다행히도 어침장이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자칫 큰일이 날 뻔 하였사옵나...!

미친 듯 고개를 저어대는 공진.

공진 : 억울하오...! 나는 그런 옷을 만든 일이 없소이다...!

영의정 : 네 이놈! 아직도 거짓을 고하는 게냐?

왕비 : (혼란스러운) 정말... 저자가 만든 것이 분명하옵니까?

영의정 : 소신이 어침장을 통해 확인해본 바... 저 옷들과 바느질이 동일한 줄 아뢰옵나...!

놀란 왕비, 왕 앞에 걸려있는 자신의 옷들을 보면.

공진 : (뭔가 떠오른 듯) 옷깃... 옷깃을 살펴봐주십시오
소인이 만든 옷엔 작은 고사리 문양이 있사옵나대

둘석 : (긴장하면) ...!!

왕비 : 소침도 부락드리옵나... 저자가 저리도 말하는데...
제발 넓은 아량으로 한 번만 살피게 해주옵소서. 전하...

왕 : (고민만 하면) ...

눈치보다 응복 내미는 대전내관. 왕비 살펴보더니 아무 표식이 없자 화색이 된다.

왕비 : 없사옵나. 이자가 만든 옷이 아니옵니다...

영의정 : 다른 옷도 확인해야 공정하지 않을까 하옵나...!

영의정 목소리에 왕을 돌아보는 왕비, 그리고 공진.

고역이는 왕. 돌석이 나서서는 공진이 만든 왕비의 옷을 살펴본다.
웃기 뒤를 만지다 멈추는 돌석의 손. 그의 손가락 끝에 고사리 문양이 보인다.

돌석 : ...!!!
왕비 : 어찌... 있습니까...?

왕의 눈빛에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여는 돌석.

돌석 : (떨리는) 소인이 살펴본 바...
공진 : (기대하면) ...
돌석 : (꿀꺽하더니) ...없사옵니다.
공진 : ...!!

조용히 미소를 떠올리는 왕. 왕비, 망연자실한 눈으로 비활한다.

공진 :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습니대 다시 한 번 봐주시오
분명 거기에 있던 말이오 어침장 어르사-안-!!!

영의정 뒤로 물러나는 돌석. 처절한 공진의 시선을 외면한다.

왕 : 공공이 생각해보았소... 저자가 왜 나를 독살하려했을까...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도... 어느 당파에 속한 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일개 바느질쟁이가 일국의 왕을 죽이려한 것일까...
그러던 중 어떤 소문 하나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겠소...

천천히 걸어가다 왕비의 뒤에 서는 왕. 왕비, 긴장하면.

왕 : 자, 말해보시오... 설마 중전도 한때였던 게요?
왕비 : (돌아보며) 전하...!! 그것이 무슨...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공진의 눈빛이 흔들리다 마른 입술을 연다.

왕비 : 소첩...
공진 : 소인 혼자 한 짓이옵니다... 마마께서는... 아무 것도 모르시옵니다...
왕비 : ...!!!
공진 : 소인, 본래 근본 없는 농민지라... 감히 마마를 품에 안고 싶다는 마음에...

망연자실해하는 왕비. 왕은 공진을 가웃... 뚝끼 가득한 눈으로 본다. 그 뚝끼가 분노로 바뀌어간다.
왕비, 공진의 마음 알지만 아직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두 눈을 조용히 감는다.

왕 : 미친 놈... 으하하하하!!!

니놈이 혼자 벌인 일이다.. 중전을 품고 싶은 마음에?
이런 미친놈을 보았나... 하하하하하 내 살다살다 저런 미친놈은 처음 일세!
(갑자기 이성을 잃은 눈빛으로 변하며) 그깟 옷 하나 때문에...
(왕비를 노한 눈으로 노려보며) 그깟 옷이 뭐라고...!

왕,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쏟아 붓는다.

왕 : 어침장... 내 본래 이 대역죄인을 국법에 따라 능지처참함이 마땅하나...
하찮은 바느질쟁이 따위에게 그런 너무 과분한 처사인 듯 하고...
내 혼자하니 상의원에서 내려오는 형벌이 있다 하던데...
저 자는 상의원에 속한 자이니 그대가 알아서 하도록 하라...
동석 : (고개 숙이면)
왕 : 영의정은 들으시오 내일부터 당장 경국대전을 손보아 앞으로 궐에서 웃을 만드는
자들의 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 관직을 내리는 것도 법으로 금하도록 하시오!
또한... 왕실의 기강을 무너뜨린 중전은 마땅히 폐위해야 옳겠으나... 그 인생 가업
게 여겨 내 친히 은혜를 베풀노니... 중전은 이 시간 이후로 처소를 연경당으로 옮
기어 평생! 평생을... 그곳에서... 한 걸음도 내 딛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오!

그때 왕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왕비.

왕비 : (말을 끊으며) 전하께선!!

왕과 공진을 비롯한 모두가 집중한다.

왕비 : 전하께선 겁쟁이십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남잡니다.
내 사랑을 모르척하는 겁쟁이라 하였습니다.
진심을 알지 못하는 전하가 불쌍할 따름입니다.
왕 : 중저언—!!
왕비 : 가뉘 보세요. 백만 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창을 달고, 문에 대못을 박아도 견참습
니다. 그래도 소침, 전하보다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왕비를 바라보는 공진의 눈길을 보곤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왕.

왕 : 무엇하느내! 당장 중전을 끌어내지 않고!

그러자 다가오는 호위내관들을 향해 카악~ 하는 눈빛을 쏘는 왕비.
그 기세에 눌린 내관들이 멈추자 담담한 눈으로 공진을 바라보다 나간다.
그녀의 뜨거운 눈길을 느낀 공진의 입가에 떠오르는 작은 미소.
왕, 분노에 가득한 눈으로 떠나는 왕비의 뒷모습을 노려본다.

왕 : 내시부는 당장 중전의 처소를 연경당으로 옮기도록 하라...!

창을 달아 문을 달아 대문을 박아! 당장! 당자-왕-!!!!

일어나 용포를 휘날리며 나가는 왕. 따르는 영의정. 대전내관이 남으면.
원망의 눈빛을 한 공진을 잠시 내려다보던 돌석.

돌석 : 작두를 대령하시게...

CUT. TO :

공진 앞에 놓이는 시퍼런 작두.

두려움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공진의 눈. 그러나 패기는 잃지 않는다.

돌석 : 그동안 정이 있으니 내 너의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나...

공진 : (차갑게 쏘아보면)

돌석 : (애써 무시하며) 상의원 법도에 따라 열 손가락을 모두 잘라낼 것이다.

공진 : 잘라. 다 잘라... 그깟 손가락 따위 잘라버린다고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해?

그래... 기껏해야 그렇게 원하던 양반은 될 수 있겠지...

그래도 말아야. 당신은 괴로울 거야...

왜냐하면... 날 이길 수가 없거든... 내 옷이 더 아름답고 자유로우니까...!!

돌석, 공진의 말에 차갑게 비웃음을 낚는다.

돌석 : 아름답다했나? 천하디 천한 그 천 쪼가리들이 아름답다고?

하긴 기껏해야 기녀들의 옷이나 만들던 천한 농 따위가 아름다움을 알리가 없지.

네 그 천한 손으로 만든 옷은 모조리 사라지게 될 것이니라...

공진 : 그러한다고 사람들이 내 옷을 입지 않을 것 같수?

돌석 : 옷이란 그 사람의 계급인지라 아름다움보다 예와 법이 우선 돼야 하는 법...

장담하건데... 너의 옷이 세상에 풀릴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니라...

공진 : 이미 불씨는 타올랐소이다... 이제 곧 모든 이들에게 번져가겠지...

돌석 : 내 짓밟아 다시 깨버릴 것인즉...

공진 : (코웃음 치더니) 당신 따위가? 그럴 능력은 되시고?

누군갈 위해 진심으로 옷을 만들 본 적도 없으면서...

당신은 절대 안 돼..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 옷을 만들거든...

그래서 당신한테는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야... 알아?

그래서 당신 옷이 그지 같은 거야... ㅋㅋㅋ...

돌석 : 네... 네 이놈...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내가 바로 어침장이니라...

이 나라의 지존 주상전하의 의대를 만드는 바로 그 어침장이라고!!

일순간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한 느낌에 일어나는 돌석.

어금니를 깨물며 증오의 눈으로 공진을 내려다보는 돌석.

그의 눈에 마치 자신의 손처럼 굳은살과 상처로 가득한 공진의 손이 보인다.

모두 돌리지 않게 조용히 공진의 얼굴 앞에서 공진의 손을 꼭 부여잡고 읊조린다.

돌석 : 난 지금까지 네놈이 천재 인 줄로만 알았다... 그제 하늘이 내려 준 공짜 손재주를 가진... 배부른 자라 여기며 나를 위로했다...

공진, 치를 떨며 손을 빼려고 하지만 돌석 더 완강하게 붙잡아 말을 잇는다.
이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알지 못해 궁궁해 하는 대전내관과 사람들.

돌석 : (자조 섞인... 참담한) 근데... 이 손 말이다... 나만큼.. 상하고.. 망가진 이 손... 이 손이 나를 미치게 하는 구나. (고통스런 고백) 끼어들지 말았어했어... 내가... 죽을힘을 다해 만들어 놓은 ... 내 인생에 말이야...

돌석, 두 손을 툭 놓더니 일어나 단호하게 말한다.

돌석 : 이 자의 손가락 대신 두 눈을 뺏아버리도록 하시오
다시는 그 잘난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어둠 속에 있도록...!!
그것이 오늘부터 새로이 만들어진 상의원의 법도외대
공진 : (놀라선) 무... 무슨 소리요... 눈이라니...!!

대전내관의 손짓에 작두에서 공진의 손을 빼더니 그의 팔다리를 잡는 내관들.

공진 : 여보시오... 잠깐만... 잠깐...!!
돌석 : 잘 들어라... 네놈의 천한 이름 따위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인즉...
상의원의 모든 기록에 이공진이란 이름 석자는 모조리 지워버릴 것이니라...
공진 : 왜... 왜 내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왜 왜
돌석 : 속히 처형 하시오

돌아보지도 않고 자리를 떠버리는 돌석.
호위내관들 단도를 꺼내 들고 공진의 앞으로 위협적으로 다가간다.

공진 : 안 돼... 그러지 마... 안 돼...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몸부림치는 공진 누르는 그의 눈앞에 칼끝을 돌이대는 내관들.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는 돌석 뒤로 공진의 비명이 메아리친다.

공진 : 으아아아아아아아—!!

#122. EXT. 인정전 마당 - 낮

따스한 햇살. 궁궐 한 켠에 심어진 나뭇가지에서 피어나기 시작한 벚꽃.
풍악과 함께 문무백관이 도열한 품계석들 앞에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대전) : 아침장 조돌석은 선대왕 시절부터 삼대에 걸쳐 왕실의 옷을 만들어온 공이 결코 작지 않은 바, 이에 종6품의 벼슬을 내리니 정근토록 하라...

웅상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엮드린 녹색 관복의 돌석.
떨리는 거친 그의 손 위에 대전내관이 고이 접은 청색의 관복을 놓아준다.
청색 관복 위에 놓인 해오라기가 수놓아진 흉배를 보는 돌석.
빨갭게 물든 눈으로 자신의 새 관복을 바라보다 큰절을 올린다.

#123. EXT. 후궁전 앞 - 낮

예전의 소의처럼 왕의 용포만을 앞에 두고 혼례식을 치르는 앳된 새 후궁.
소의와 달리 밝은 얼굴로 궁녀들의 도움을 받아 용포를 향해 절을 올린다.

#124. EXT. 후궁전 - 밤

어두운 후궁전 안에 외로이 홀로 앉아있는 소의.
마치 예전 왕비의 모습과 같다.

#125. INT. 취향루 내실 - 새벽

어둠던 창밖으로 서서히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새벽 여명.
지친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와 내실 문을 여는 월향.
그녀의 발에 방 안 가득 흩어져있는 비단들과 비느질 도구들이 부딪힌다.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공진...
월향, 깜짝 놀라선 내실 밖으로 뛰어나가면

#126. EXT. 취향루 앞 - 새벽

취향루 밖으로 나와 이리저리 공진을 찾는 일꾼들과 기녀들.
공진의 비느질도구를 품에 안은 월향,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
멀리서 지켜보던 큰 갓에 도포를 입은 돌석. 천천히 돌아서 그곳을 떠난다.

#127. INT. 육의전 빈 행랑 - 밤

텅 빈 행랑 안으로 들어서는 돌석. 작은 대롱에 든 화섬자를 붙여 촛불을 켜다.
그러자 보이는 만지 가득한 하얀 천으로 덮인 몇 개의 의대들...
천을 벗기자 왕비를 위해 공진이 만들던 여러 종류의 옷들이 나타난다.

#128. INT. 도가, 부엌 - 밤 / 수정

아궁이 속에 한 장씩 떨어져 타오르는 옷이 그려진 그림들.

돌석, 보따리에서 왕비를 위한 옷들을 꺼내 아궁이에 넣는다.
그러자 잠시 작아졌던 불길에 환하게 다시 커지며 타들어가는 비단 옷.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씩 재가 되어가는 옷을 보던 돌석.
옷깃 뒤에서 수놓았던 실이 고사리 문양이 되며 먼저 타들어가는 바라본다.

그러다 마지막 옷을 불 속에 넣으려다 멈칫하더니 놀란 눈으로 그 옷을 다시 펼쳐본다.
그러자 제 모습을 드러내는 마지막 옷... 옥색 비단으로 만들어진 멋들어진 도포였다.

F.B>

- 빈 행랑에서 공진이 돌석의 도포를 만들고 있다. 금실로 수를 놓는다.
- 잠시 바느질을 멈추더니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웃는 공진의 얼굴...

도포에 웃고롱에 금실이 수놓아져 있다.

(돌석) : 웃고롱에는 금실로 수를 놓고...

허리끈에 달린 방울...

(돌석) : 허리에는 방울도 달고 말아야...

돌석이 말한 그대로 지어진 도포...
웃감이며 색깔이며 장신구 하나까지 그때 나는 이야기에 따라 만들어져있었다.
돌석 손이 싱하게 흔들린다.

F.B>

- 어두운 밤, 취향루 앞을 함께 걸어가던 공진의 착하고 밝은 웃는 얼굴.

공진 : 양반되는 날 말하쇼 이 몸이 옷 한 벌 정하게 만들어 드릴리니까...

그제야 그것이 자신을 위해 만든 것임을 깨닫고는 혼란스러워하는 돌석.
울컥하여 입을 막는 돌석. 아무리 참으려 해도 그치지 않는 눈물에 괴로워하는데...
누가 들을까... 차마 소리 내지 못하고 계속 오열하는 돌석.
아궁이 입구에 떨어진 옷 그림 하나, 작은 불씨 옮겨 붙더니 천천히 타오른다.

#129. INT. 연경당 - 낮

새지밀 : 날이 춥습니다...

떨어지는 하얀 벚꽃을 보는 왕비. 새 지밀상궁 다가와 문을 닫는다.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가구와 물품들. 웃음기 잃은 처연한 왕비의 얼굴.
원가를 정리하는 궁녀들이 보인다. 왕에게 선물 하려던 속곳이 든 상자를 내 놓는 새지밀.

지밀 : 마마.. 이것은...

왕비 : (가만히 보고 차가운 얼굴) 내다 버리도록 하라.

지밀, 상자를 한쪽으로 밀어 둔다. 그리고 다시 왕비의 옷들을 내놓으며 정리하는데,
진연 때 입었던 붉은 원삼이 눈에 들어온다.

왕비 : 잠깐... 잠시 가져와 보아라.

손을 멈춘 궁녀들, 어떤 것인가 하면.

왕비 : 그거... 그래 그거 말이다.

왕비 앞에 붉은 원삼을 넓게 펼쳐주는 궁녀. 왕비 자신의 원삼을 가만히 만져본다.
문득 어떤 생각이 난 듯 옷깃 뒤쪽을 보는 왕비. 원가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다시 살핀다.
확- 하며 눈가가 빨갛게 물들더니 갑자기 눈물 흘리기 시작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 일제히 무릎 꿇는 새 지밀과 궁녀들.
하염없이 옮기만 하는 왕비의 하얀 손가락 사이로 은은하게 수놓아진 고사리 문양이 보인다.
그렇게 슬피 우는 왕비를 비추며 천천히 물러나는 화면.
하얀 꽃잎이 눈처럼 떨어지는 별채 밖으로 나가면...

#130. EXT. 도가 마당 - 낮/석양

예전 같은 형태의 곤룡포와 면복, 융복 등만 가득한 공방 안.
돌석이 큰 갖에 공진이 남겨준 멋드러진 도포를 입고 있다.

대길 : 어찌 의관을 갖추시는지요?

돌석 : 곧 삼절이니 마마님들께 진상할 새 옷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131. EXT. 도가 마당 - 낮/석양

오래 전처럼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 어명이 내려오길 기다리는 돌석.
하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하늘은 결국 노란 석양빛으로 물들어간다.

대길 : 그만 돌아가시지요. 올해도 아니 올 모양이옵니다.

돌석 : 아니다... 전하께서 나만은 반드시 다시 부르신다 하셨다...

대길의 만류에서 고집부리며 버티는 돌석. 대길도 그만 포기하고 마는데.
망부석 같이 홀로 마당 지키는 돌석 비추며 물러나는 화면.
천천히 도가 문 밖으로 나가 시장을 보여주면...
칙칙하던 예전과 달리 온갖 색깔의 옷들로 화려해진 시장의 풍경.

부쩍 커진 가체, 찢어진 저고리와 풍성해진 치마, 소매가 좁고 멋스러워진 남자들의 도포 등.
모든 사람들이 공진이 만들고, 또 만들려했던 옷차림으로 변해있다.
그렇게 형형색색으로 물든 활기찬 시장의 전경 보여주며 봉입 하는 화면... 서서히 암전된다.

#132. INT. 박물관 - 낮

유리벽 속에 걸려있는 붉은 원삼을 반한 듯 바라보는 아가씨.
세월의 흔적이 깃든, 그러나 여전히 아름다운 왕비의 원삼에 시선을 빼앗긴 듯.
공진이 만든 아름다운 원삼을 한참 바라보는 아가씨.
만져보고 싶은지 유리를 손가락으로 집으며 원삼을 따라 매만져 본다.
아름다운지 입가에 미소가 걸린다. 친구가 와서 가자고 팔짱을 낀다.
아가씨, 친구 따라 가며 원삼을 돌아본다.

#133. EXT. 광화문 앞 . 낮

눈이 내린다. 광화문 앞에 하얗게 쌓이는 눈.
그령을 보던 아가씨 친구와 나온다. 잠시 서서 눈을 바라본다.
손을 내밀어 하얀 눈을 받아낸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본다.
광화문에... 눈이 내린다...

<끝>